

#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 제 출 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용역 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1. 22.

---

(주)현대리서치컨설팅

■ 연구책임자 : 윤지환

■ 연구원 : 홍종호

전상현

김중현

■ 연구보조원 : 박성훈

이효원

김주현

■ 보조원 : 인선영

정연욱

추윤희

---



## 목 차

<b>제1장. 조사 개요</b>	<b>1</b>
1. 조사 개요	3
2. 조사 내용	3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4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6
5. 응답자 특성	7
6.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8
<b>제2장. 주요 결과 요약</b>	<b>9</b>
1. 정신건강 상태	11
2. 정신건강상태(정신건강문제 경험자)	12
3. 정신건강상태(정신건강문제 미경험자)	13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13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15
<b>제3장. 조사결과 분석</b>	<b>17</b>
1. 정신건강 상태	19
2.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경험자)	30
3.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미경험자)	41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48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76
<b>[부록] 설문지</b>	<b>93</b>

## 표 목 차

[표 1] 평소 정신건강 상태 .....	20
[표 2] 정신건강증진 노력 여부 .....	22
[표 3]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	24
[표 4]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수 .....	26
[표 5]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	27
[표 6]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	28
[표 7]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계속) .....	29
[표 8]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영향(제약) .....	31
[표 9]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제약) .....	32
[표 10] 업무 및 학업에 대한 영향(제약) .....	33
[표 11]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및 대상 .....	35
[표 12]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및 대상(계속) .....	36
[표 13]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병원 진료 대상자) .....	38
[표 14]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40
[표 15]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순위) .....	42
[표 16]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순위, 계속) .....	43
[표 17]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2+3순위 종합) .....	44
[표 18]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2+3순위 종합, 계속) .....	45
[표 19]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	47
[표 20] 정신건강(질환) 인식_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	50
[표 21]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 .....	51
[표 22]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	52
[표 23]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	53

## 표 목 차

[표 24] 정신건강(질환) 인식_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	54
[표 25]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	55
[표 26]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	56
[표 27]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	57
[표 28]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	58
[표 29]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	59
[표 30]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	60
[표 31] 정신건강(질환) 인식_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	61
[표 32] 정신건강(질환) 인식_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62
[표 33]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63
[표 34] 정신건강(질환) 인식_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	64
[표 35] 본인 또는 지인의 정신건강질환 경험 여부 .....	66
[표 36] 과도한 게임사용의 중독 유발에 대한 의견 .....	68
[표 37] 정신건강(질환)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70
[표 38]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순위) .....	72
[표 39]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순위, 계속) .....	73

## 표 목 차

[표 40]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2순위 종합) .....	74
[표 4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2순위 종합, 계속) .....	75
[표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77
[표 43]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복수응답) .....	79
[표 4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	81
[표 4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지도 .....	82
[표 46]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84
[표 47]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86
[표 48]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계속) .....	87
[표 49]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	89
[표 50]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 인지도 .....	91



## 그림 목 차

〈그림 1〉 평소 정신건강 상태 .....	19
〈그림 2〉 정신건강증진 노력 여부 .....	21
〈그림 3〉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	23
〈그림 4〉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수 .....	25
〈그림 5〉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	27
〈그림 6〉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경험 .....	30
〈그림 7〉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	34
〈그림 8〉 상의(상담) 혹은 병원치료 대상(복수응답) .....	34
〈그림 9〉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병원 방문자 대상) .....	37
〈그림 10〉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39
〈그림 11〉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	41
〈그림 12〉 상의(상담) 대상 .....	41
〈그림 13〉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	46
〈그림 14〉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48
〈그림 15〉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	49
〈그림 16〉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 .....	49
〈그림 17〉 본인 또는 지인의 정신건강질환 경험 여부 .....	65
〈그림 18〉 과도한 게임사용의 중독 유발에 대한 의견 .....	67
〈그림 19〉 정신건강(질환)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69
〈그림 20〉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순위문항) .....	71
〈그림 2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76
〈그림 22〉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복수응답) .....	78
〈그림 2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	80

## 그림 목 차

〈그림 2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지도 .....	80
〈그림 25〉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83
〈그림 26〉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85
〈그림 27〉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	88
〈그림 28〉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 인지도 .....	90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5. 응답자 특성
6.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1. 조사 개요

-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또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함.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함
표본 규모	1,5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30명 우선할당 후 성/연령/지역별 배분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3\%$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 기간	2019.10.16. ~ 2019.11.01.
조사 기관	(주)현대리서치컨설팅

##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 성, 연령, 지역, 직업, 최종학력, 소득수준
정신건강 상태	공통 문항	- 평소 정신건강 상태 -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정신건강문제 경험여부
	정신건강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여부 -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상의) 여부 및 대상 -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
	정신건강문제가 '없다'는 응답자	-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상의) 의향 및 대상 - 상담(상의)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기관 인지도	-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및 역할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가. 모집단(2019년 9월 기준)

(단위: 명)

		합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39,913,548	2,699,813	6,818,079	7,125,409	8,388,036	8,686,177	6,196,034
서울	남	3,798,130	233,543	716,492	759,117	775,547	757,511	555,920
	여	3,922,311	222,512	743,850	759,459	788,550	789,405	618,535
부산	남	1,320,672	82,226	230,321	225,296	260,690	283,878	238,261
	여	1,324,134	75,729	208,796	215,580	258,254	303,088	262,687
대구	남	956,488	70,471	175,799	159,638	195,008	210,975	144,597
	여	941,715	62,748	150,555	150,172	200,199	219,975	158,066
인천	남	1,185,050	78,565	213,586	218,785	249,759	259,483	164,872
	여	1,139,951	73,654	194,864	205,663	239,835	258,665	167,270
광주	남	564,717	47,533	109,019	98,938	121,716	115,535	71,976
	여	560,070	43,785	99,449	96,400	123,483	117,894	79,059
대전	남	585,173	43,913	112,699	104,651	121,576	121,623	80,711
	여	569,609	40,517	100,938	98,130	122,045	123,217	84,762
울산	남	474,222	33,444	83,865	85,317	96,677	108,282	66,637
	여	435,250	29,422	66,200	76,542	94,442	103,527	65,117
경기	남	5,248,384	374,950	928,822	992,178	1,160,491	1,113,688	678,255
	여	5,022,279	348,763	837,872	941,892	1,124,055	1,080,954	688,743
강원	남	598,439	42,308	100,665	89,721	118,263	139,267	108,215
	여	553,704	38,210	79,647	82,105	110,778	133,255	109,709
충북	남	630,433	44,190	110,960	105,955	126,602	141,120	101,606
	여	577,321	40,091	89,255	95,301	117,283	133,728	101,663
충남	남	949,256	66,148	152,924	180,610	207,498	201,325	140,751
	여	860,802	61,292	128,680	162,382	183,511	182,636	142,301
전북	남	688,903	52,426	115,443	103,182	142,846	156,945	118,061
	여	647,487	48,775	99,014	97,307	132,936	148,118	121,337
전남	남	705,571	51,043	111,601	103,412	142,943	169,415	127,157
	여	629,928	46,517	91,302	93,336	123,424	148,873	126,476
경북	남	1,032,755	69,049	165,831	164,747	205,058	241,049	187,021
	여	940,656	60,767	129,064	145,505	187,469	227,016	190,835
경남	남	1,320,949	94,994	214,721	223,016	280,181	298,240	209,797
	여	1,226,718	84,364	173,762	205,415	263,613	286,975	212,589
제주	남	259,084	19,844	43,385	43,461	58,830	57,509	36,055
	여	243,387	18,020	38,698	42,196	54,474	53,006	36,993

## 나. 표본

-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30개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단위: 명)

		합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1,500	104	253	265	315	327	236
서울	남	111	7	21	22	23	22	16
	여	116	7	22	23	23	23	18
부산	남	48	3	8	8	10	10	9
	여	50	3	8	8	10	11	10
대구	남	40	3	7	7	8	9	6
	여	39	3	6	6	8	9	7
인천	남	45	3	8	8	10	10	6
	여	44	3	8	8	9	10	6
광주	남	30	3	6	5	6	6	4
	여	29	2	5	5	7	6	4
대전	남	30	2	6	6	6	6	4
	여	30	2	5	5	6	7	5
울산	남	28	2	5	5	6	6	4
	여	25	2	4	4	5	6	4
경기	남	149	11	26	28	33	32	19
	여	144	10	24	27	32	31	20
강원	남	30	2	5	5	6	7	5
	여	29	2	4	4	6	7	6
충북	남	31	2	6	5	6	7	5
	여	30	2	5	5	6	7	5
충남	남	39	3	6	7	9	8	6
	여	37	3	5	7	8	8	6
전북	남	33	2	6	5	7	7	6
	여	31	2	5	5	6	7	6
전남	남	34	3	5	5	7	8	6
	여	30	2	4	5	6	7	6
경북	남	42	3	7	7	8	10	7
	여	38	2	5	6	8	9	8
경남	남	49	4	8	8	10	11	8
	여	46	3	6	8	10	11	8
제주	남	23	2	4	4	5	5	3
	여	20	1	3	4	5	4	3

##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 가.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으로 분석함.

### 나. 가중치 산출

-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2019년 9월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처리 후 분석함.
- 층별 최종 표준화 가중치  $W_{ijk}$ 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함.

[표준화 가중치 산출식]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 $i = 1(\text{서울}), 2(\text{부산}), \dots, 16(\text{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 $j = 1(\text{남성}), 2(\text{여성})$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 $k = 1(15\sim 19\text{세}), 2(20\text{대}), \dots, 6(60\text{대})$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수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표본(조사된) 응답자수
- $N$  : 모집단 전체 인구수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수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의 가중치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 5. 응답자 특성

### 가. 층별 응답자 수

(단위: 명)

		합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1,500	104	253	265	315	327	236
서울	남	111	7	21	22	23	22	16
	여	116	7	22	23	23	23	18
부산	남	48	3	8	8	10	10	9
	여	50	3	8	8	10	11	10
대구	남	40	3	7	7	8	9	6
	여	39	3	6	6	8	9	7
인천	남	45	3	8	8	10	10	6
	여	44	3	8	8	9	10	6
광주	남	30	3	6	5	6	6	4
	여	29	2	5	5	7	6	4
대전	남	30	2	6	6	6	6	4
	여	30	2	5	5	6	7	5
울산	남	28	2	5	5	6	6	4
	여	25	2	4	4	5	6	4
경기	남	149	11	26	28	33	32	19
	여	144	10	24	27	32	31	20
강원	남	30	2	5	5	6	7	5
	여	29	2	4	4	6	7	6
충북	남	31	2	6	5	6	7	5
	여	30	2	5	5	6	7	5
충남	남	39	3	6	7	9	8	6
	여	37	3	5	7	8	8	6
전북	남	33	2	6	5	7	7	6
	여	31	2	5	5	6	7	6
전남	남	34	3	5	5	7	8	6
	여	30	2	4	5	6	7	6
경북	남	42	3	7	7	8	10	7
	여	38	2	5	6	8	9	8
경남	남	49	4	8	8	10	11	8
	여	46	3	6	8	10	11	8
제주	남	23	2	4	4	5	5	3
	여	20	1	3	4	5	4	3

## 6.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그래프 · 도표 · 교차분석표 내의 숫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조사된 결과에 모집단의 비율을 층별로 가중치를 통해 반영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특정 층의 항목별 응답 비율을 응답자 수로 환산할 경우 정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유사 조사와 비교 시 조사방법과 조사지역,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기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는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응답 사례수가 30 이하인 경우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제2장 주요결과 요약



1. 정신건강 상태
2.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3.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기관 인지도



## 주요 결과 요약

### 1. 정신건강 상태

○ 우리나라 국민의 46.8%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9.7% + 좋다 37.0%)고 응답한 반면, 11.8%는 부정적(나쁘다 10.7% + 매우 나쁘다 1.1%)으로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1.4%임.

- 전년 조사 대비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5%p 하락함.

※ 56.8%(’15) → 53.4%(’16) → 54.5%(’17) → 52.3%(’18) → 46.8%(’19)

○ 응답자의 67.1%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노력을 한다’(매우 그렇다 6.9% + 그렇다 60.2%)고 응답했으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그렇지 않은 편이다 30.9% + 매우 그렇지 않다 2.0%)임.

-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운동 및 취미활동이 47.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23.9%), ‘명상 및 휴식’(15.0%), ‘종교생활’(7.0%), 상담 및 대화(4.8%), ‘봉사 활동’(1.3%), ‘기타’(0.9%) 순임.

○ 주요한 정신건강문제 13가지에 대한 경험률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균 2.2개(경험자 평균 3.6개)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정신건강문제 경험자 62.2%로 전년 대비 2.3%p 상승함.

- 정신건강문제를 5개 이상 경험한 고위험군은 20.4%임.

○ 유형별로는 ‘심각한 스트레스’(37.6%)가 가장 많았고, ‘수 일간 지속된 우울감’(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30.2%) 순임.

- 전년 조사 대비 정신건강문제의 유형별 경험률이 대부분 소폭 상승함.

정신건강문제 유형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9.1	30.3	1.2%p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29.1	30.2	1.1%p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폭력행위 등)	11.7	13.7	2.0%p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	25.0	27.9	2.9%p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	24.1	24.9	0.8%p
심각한 스트레스	38.6	37.6	-1.0%p
자살생각	9.0	9.5	0.5%p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9.5	22.5	3.0%p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6.4	7.1	0.7%p
알코올 문제	5.8	8.9	3.1%p
약물중독		2.4	-
도박중독	3.8	1.8	-2.0%p
기타 중독(게임 중독 등)	12.4	7.0	-5.4%p

## 2. 정신건강상태(정신건강문제 경험자)

-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상 및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고, ‘업무 및 학업’(58.5%),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55.8%) 순임.
  - 정신건강문제를 5개 이상 경험한 고위험군의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누군가와 상담(상의)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2.0%임.
  - 상담(상의) 대상(n=205)은 ‘가족 및 친지’(39.7%),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38.3%), ‘친구 또는 이웃’(36.8%),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27.4%), ‘사회복지사’(9.2%), ‘정신과 이외 의사(또는 간호사)’(6.7%), ‘종교인’(6.2%), ‘무속인’(1.9%), ‘기타’(1.5%) 순임.
- 본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6개월 내’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46.7%, ‘1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도 30.9%임.
  - ‘3개월 이하’ 29.7, ‘3개월~6개월 이하’ 17.0%, ‘6개월~1년 이하’ 22.5%, ‘1년~3년 이하’ 13.5%, ‘3년 초과’ 17.4%

-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상의)을 받지 않은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나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가 39.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20.3%),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2%),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10.9%),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9.4%)라고 응답함.

### 3. 정신건강상태(정신건강문제 미경험자)

- 지난 1년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정신건강문제 발생 시 상담의향을 묻자 73.7%가 주변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상담(상의) 대상으로는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종합 73.1%)가 가장 높고,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71.2%), ‘가족 및 친지’(67.1%) 순임.
- 상담(상의)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나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가 29.9%로 가장 높으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3.6%), ‘정신질환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22.0%),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10.3%)이나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6.2%) 순임.

###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5개 문항을 질문한 뒤,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②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③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 ④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함.
- 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해당하는 6개 항목에 대한 동의율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64.5%),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42.8%),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39.2%),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30.6%),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22.6%)임.

- ②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5개 문항의 동의율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83.2%),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77.9%),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72.5%),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71.5%),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64.9%)임.
- ③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은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53.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45.1%),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38.9%)임.
- ④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영역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15.9%에 불과함.
- ‘과도한 게임사용이 중독문제를 유발한다’에 82.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3.9%, 그렇다 58.1%)고 응답함.
-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TV’가 60.1%로 가장 높고, ‘인터넷’(52.6%), ‘가족 및 지인’(22.9%), ‘병원’(22.8%), ‘보건소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12.2%), ‘서적’(11.3%), ‘라디오’(5.7%), ‘기타’(1.4%) 순임.
-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예방, 치료, 회복에 대한 교육’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고,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34.1%),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서비스’(33.7%),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23.8%),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18.6%), ‘상담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18.0%), ‘연령별 정신건강서비스(프로그램) 제공’(14.2%) 순임.



##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도는 56.8%로 전년 대비 2.0%p 증가했으며,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4%로 전년 조사 대비 0.4%p 감소함.

※ 기관 인지도: 58.7%(‘16) → 52.0%(‘17) → 54.7%(‘18) → 56.8%(‘19)

※ 기관 이용자: 3.0%(‘16) → 4.4%(‘17) → 3.8%(‘18) → 3.4%(‘19)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자살예방상담전화’가 45.7%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콜센터’(32.7%),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7.0%) 순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47.6%임.

- ‘이름만 알고 있다’ 34.1%, ‘중독관리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10.8%, ‘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2.7%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상담 유형에 대해 ‘알코올 중독’(87.5%) 상담이 가장 높았고, ‘도박 중독’(73.6%), ‘마약 중독’(68.0%), ‘게임 사용 장애’(49.6%) 순임.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도는 53.6%임.

- ‘잘 알고 있다’ 4.9%, ‘이름만 알고 있다’ 48.7%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자 중 절반 정도가 ‘TV·라디오 뉴스 관련 프로그램’(50.0%) 또는 ‘인터넷 뉴스나 기사’(49.0%)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SNS’(11.3%), ‘타의료기관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9.9%),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의 오프라인 홍보물’(8.5%), ‘종이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8.3%),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8.0%), ‘주변 지인’(4.3%) 순임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40.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과 전문의 개인 심층상담’(25.8%),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18.2%), ‘앱, 홈페이지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10.2%), ‘정신건강 연구’(4.6%) 순임.



## 제3장 조사결과 분석



1. 정신건강 상태(공통)
2.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경험자)
3.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미경험자)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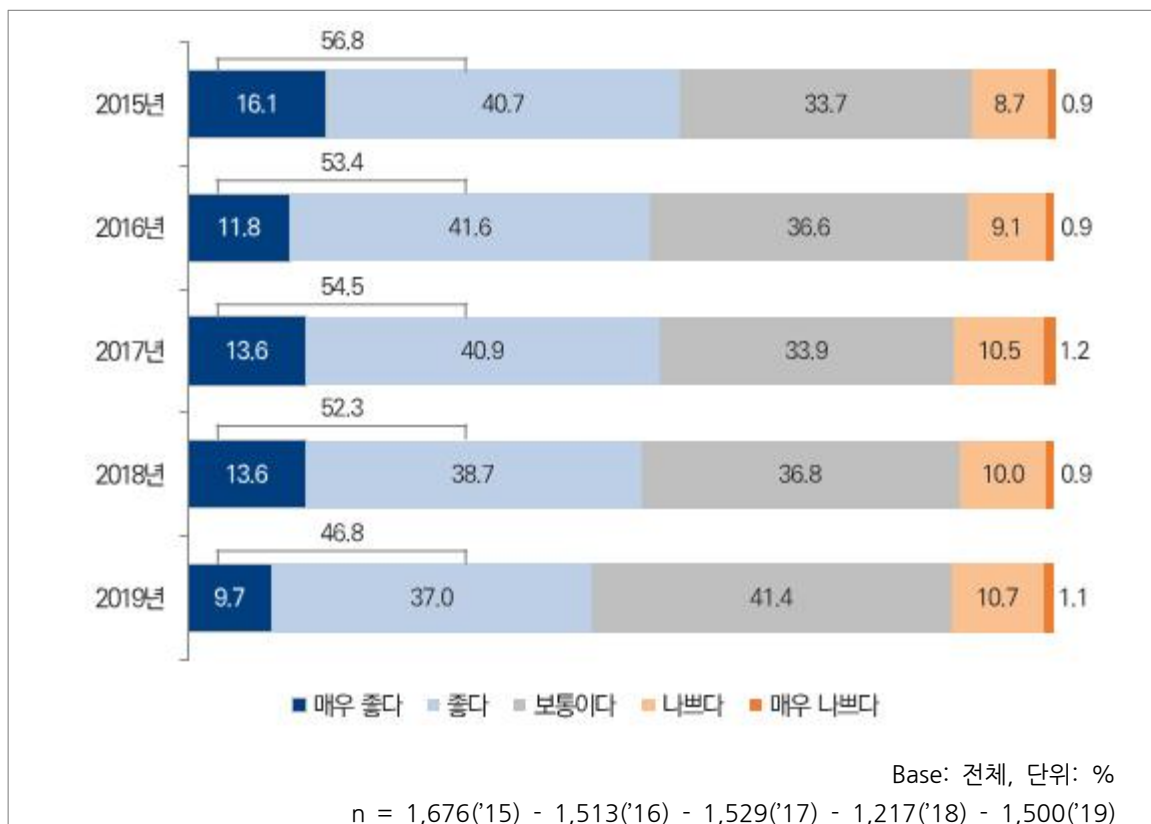


## 1. 정신건강 상태

### 가. 평소 정신건강 상태

- 응답자의 46.8%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9.7% + 좋다 37.0%)고 응답한 반면, 11.8%는 부정적(나쁘다 10.7% + 매우 나쁘다 1.1%)으로 응답함.
- 전년 조사 대비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5%p 하락함.

<그림 1> 평소 정신건강 상태



## 응답자 특성

- ✓ 남성(51.1%)이 여성(42.3%)에 비해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높음.
- ✓ 30대에서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가장 낮음.

[표 1] 평소 정신건강 상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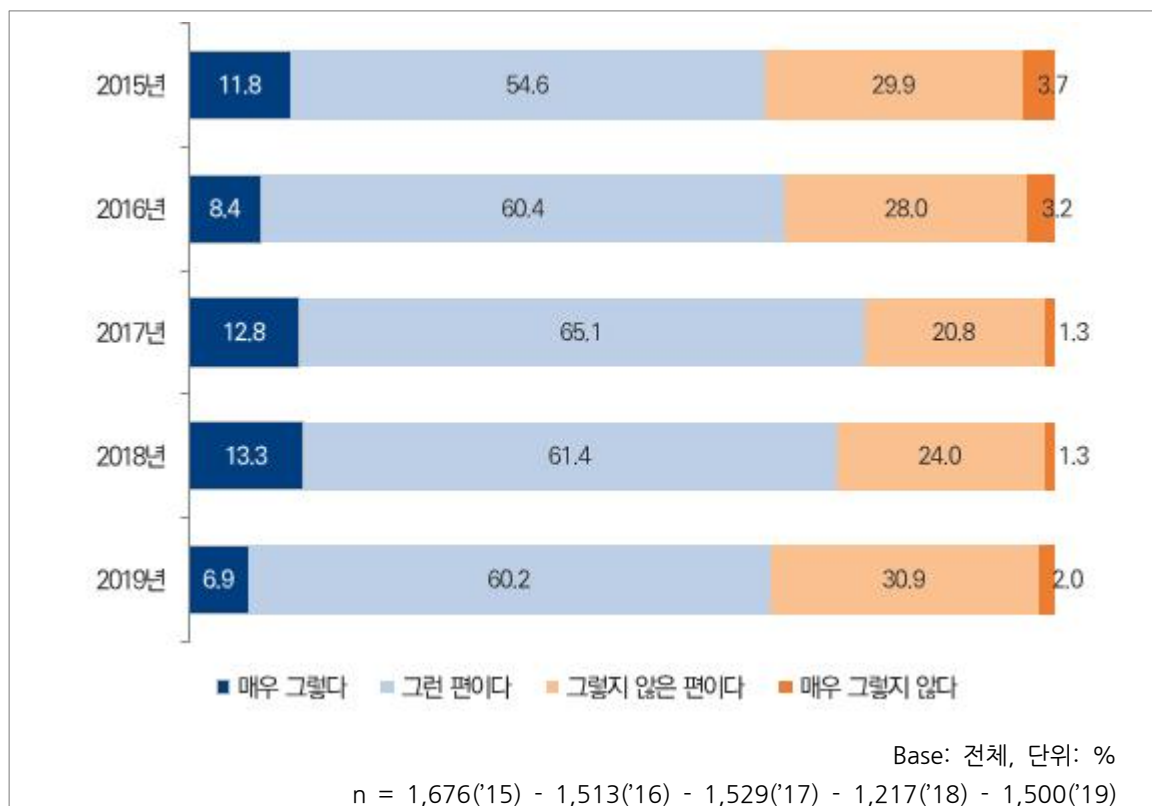
		사례수	①+② 좋다	매우 좋다	좋다	③ 보통이다	④+⑤ 나쁘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전체		(1,500)	46.7	9.7	37.0	41.4	11.8	10.7	1.1
성별	남성	(761)	51.1	12.4	38.7	39.0	9.9	9.1	0.8
	여성	(739)	42.3	7.0	35.3	43.9	13.8	12.3	1.5
연령	15~19세	(104)	56.3	13.4	42.9	26.3	17.4	17.4	0.0
	20대	(256)	43.5	9.9	33.6	39.1	17.4	14.4	3.0
	30대	(267)	37.2	6.7	30.5	46.1	16.7	16.2	0.5
	40대	(316)	46.0	7.3	38.7	45.2	8.8	8.1	0.7
	50대	(327)	50.3	12.9	37.4	41.9	7.7	6.5	1.2
	60대	(230)	53.1	10.0	43.1	39.4	7.5	6.6	0.9
지역	서울	(289)	47.8	10.2	37.6	40.1	12.2	11.3	0.9
	인천/경기	(470)	46.0	8.8	37.2	40.9	13.1	11.8	1.3
	충청권	(160)	48.5	8.8	39.7	40.8	10.7	10.3	0.4
	경상권	(375)	46.2	10.9	35.3	41.9	11.9	10.1	1.8
	전라권	(145)	46.2	10.6	35.6	43.5	10.2	9.3	0.9
	강원/제주	(61)	48.3	7.7	40.6	44.7	7.1	7.1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51.1	12.4	38.7	30.7	18.3	16.6	1.7
	고등학교 졸업	(307)	42.6	9.2	33.4	42.6	14.9	12.3	2.6
	대학 재학/졸업	(986)	45.9	9.4	36.5	42.4	11.6	11.0	0.6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0.2	11.5	48.7	37.4	2.5	1.1	1.4
소득	200만원 미만	(163)	37.8	8.1	29.6	45.1	17.2	15.5	1.6
	200~300만원	(232)	41.6	9.2	32.4	47.2	11.2	10.2	1.0
	300~400만원	(306)	45.1	8.9	36.3	41.3	13.6	13.2	0.4
	400~500만원	(240)	44.0	10.9	33.2	46.9	9.1	8.1	0.9
	500~600만원	(208)	52.5	8.4	44.1	35.0	12.5	11.9	0.6
	600만원 이상	(281)	59.3	14.1	45.2	32.7	8.0	6.9	1.1
	모름	(69)	33.8	1.1	32.8	49.2	17.0	10.7	6.3

## 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1) 정신건강증진 노력 여부

- 응답자의 67.1%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노력을 한다’(매우 그렇다 6.9% + 그렇다 60.2%)고 응답했으며, 32.9%는 ‘노력하지 않는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30.9% + 매우 그렇지 않다 2.0%)고 응답함.
-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년 조사 대비 7.6%p 하락함.
  - 2018년 문항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쓰시는 편입니까”
  - 2019년 문항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노력을 하십니까”

<그림 2> 정신건강증진 노력 여부



## 응답자 특성

✓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증진 노력을 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2] 정신건강증진 노력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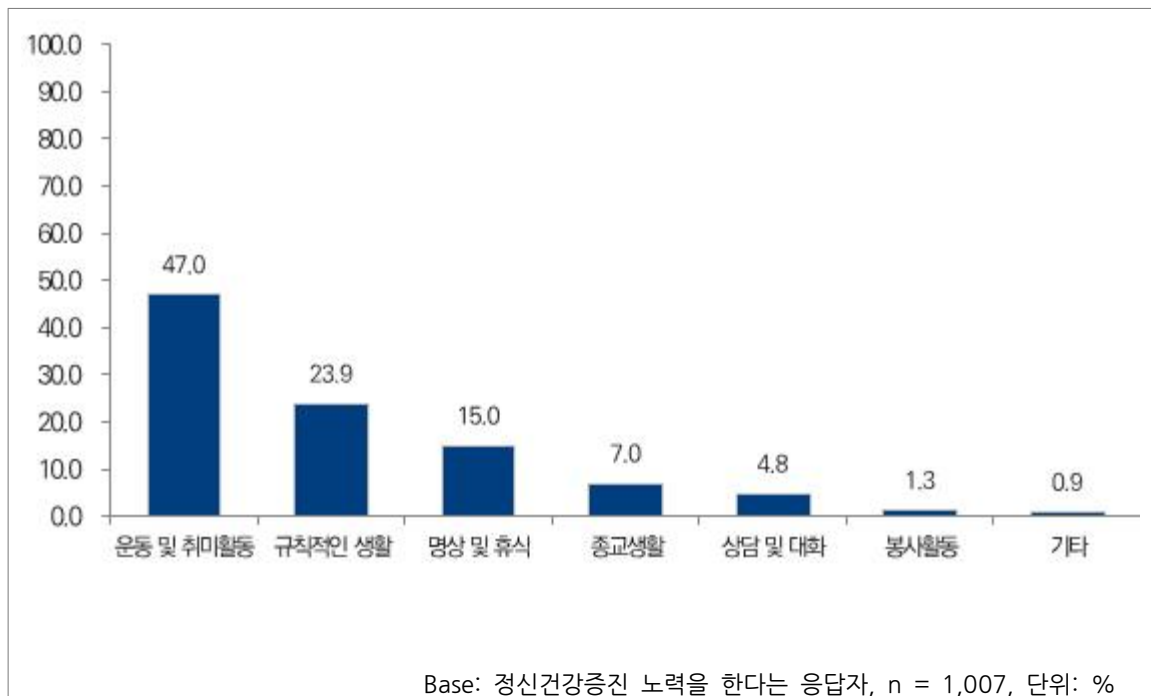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좋다	좋다	③+④ 나쁘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전체		(1,500)	67.1	6.9	60.2	32.9	30.9	2.0
성별	남성	(761)	66.9	8.1	58.8	33.1	30.9	2.2
	여성	(739)	67.3	5.7	61.6	32.7	30.8	1.9
연령	15~19세	(104)	61.8	9.5	52.3	38.2	35.0	3.2
	20대	(256)	65.1	7.5	57.6	34.9	31.9	3.0
	30대	(267)	62.6	7.0	55.6	37.5	33.7	3.8
	40대	(316)	64.4	3.5	60.9	35.6	33.5	2.1
	50대	(327)	69.7	7.7	62.0	30.2	29.9	0.3
	60대	(230)	77.0	8.4	68.6	22.9	22.2	0.7
지역	서울	(289)	66.5	5.7	60.8	33.4	30.8	2.6
	인천/경기	(470)	65.5	6.6	58.9	34.5	32.7	1.8
	충청권	(160)	65.3	7.6	57.7	34.7	30.7	4.0
	경상권	(375)	67.7	7.5	60.2	32.3	31.1	1.2
	전라권	(145)	71.6	6.9	64.7	28.4	26.8	1.6
	강원/제주	(61)	73.2	9.4	63.8	26.8	25.7	1.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57.2	4.4	52.8	42.8	38.2	4.6
	고등학교 졸업	(307)	66.3	5.4	60.9	33.7	31.6	2.1
	대학 재학/졸업	(986)	67.8	7.4	60.4	32.3	30.5	1.8
	대학원 재학 이상	(129)	70.3	8.1	62.2	29.6	27.6	2.0
소득	200만원 미만	(163)	66.1	3.7	62.3	33.9	31.5	2.5
	200~300만원	(232)	63.5	6.9	56.6	36.5	34.0	2.6
	300~400만원	(306)	68.1	6.8	61.3	31.9	29.3	2.5
	400~500만원	(240)	70.9	8.6	62.4	29.1	27.5	1.6
	500~600만원	(208)	65.7	6.3	59.4	34.3	33.8	0.5
	600만원 이상	(281)	70.9	8.6	62.3	29.1	26.9	2.2
	모름	(69)	53.2	4.0	49.2	46.8	44.7	2.1



## 2)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운동 및 취미활동이 47.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23.9%), ‘명상 및 휴식’(15.0%), ‘종교생활’(7.0%), 상담 및 대화(4.8%), ‘봉사활동’(1.3%), ‘기타’(0.9%) 순임

<그림 3>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 응답자 특성

- ✓ 30대 이상은 20대 이하에 비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3]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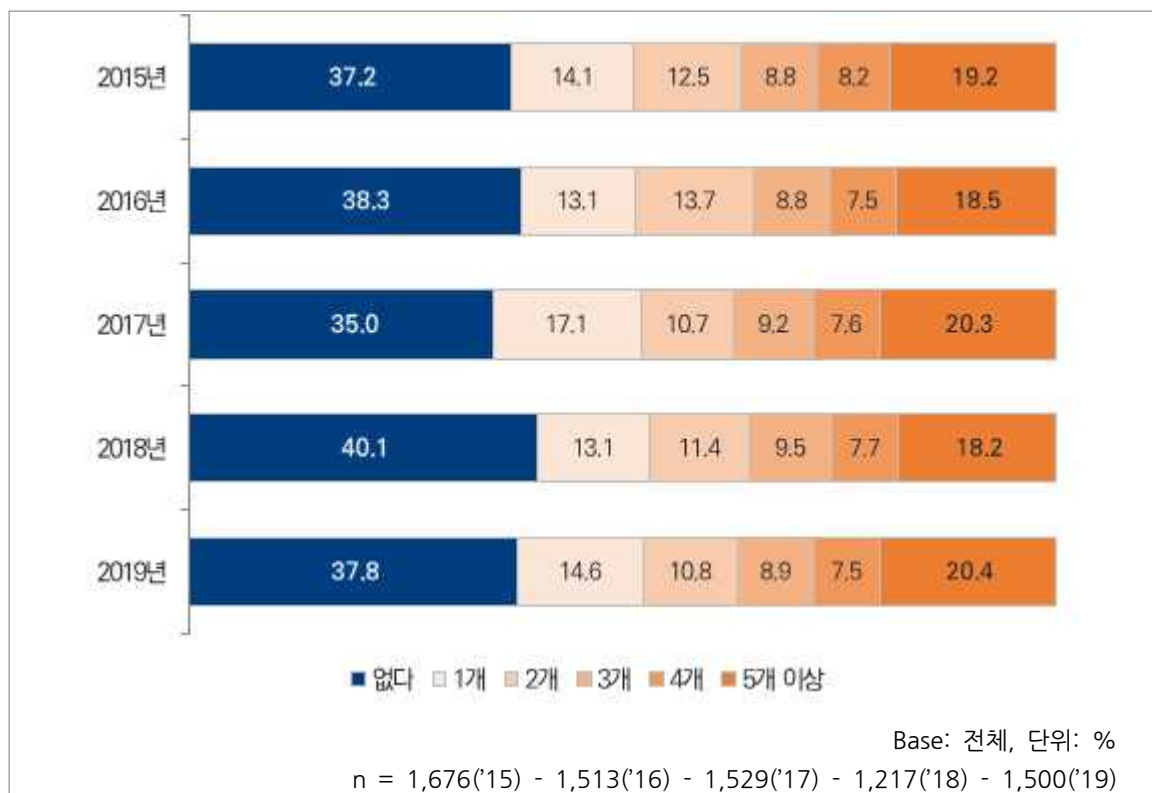
		사례수	운동/ 취미활동	규칙적인 생활	상담/대화	명상/휴식	봉사활동	종교활동	기타
전체		(1,007)	47.0	23.9	4.8	15.0	1.3	7.0	0.9
성별	남성	(509)	51.2	24.3	3.8	13.9	0.4	5.3	1.1
	여성	(498)	42.6	23.5	5.9	16.3	2.3	8.6	0.7
연령	15~19세	(64)	62.5	11.5	5.9	14.8	1.8	2.0	1.6
	20대	(167)	51.1	16.3	7.1	18.3	1.1	3.8	2.3
	30대	(167)	45.0	20.2	8.1	22.1	0.8	3.8	0.0
	40대	(203)	40.2	29.6	5.1	15.9	1.3	6.7	1.2
	50대	(228)	51.0	26.3	1.6	10.4	0.3	9.5	0.9
	60대	(177)	41.9	29.5	3.1	10.4	3.3	11.7	0.0
지역	서울	(192)	44.3	26.5	7.3	12.6	0.6	8.7	0.0
	인천/경기	(308)	51.2	21.3	3.5	15.7	1.7	5.2	1.3
	충청권	(104)	45.6	22.5	3.7	21.5	1.5	4.6	0.6
	경상권	(254)	45.4	26.5	4.2	13.3	1.1	8.5	1.0
	전라권	(104)	42.9	21.6	7.1	15.6	1.6	9.7	1.4
	강원/제주	(45)	50.3	24.3	4.4	14.6	2.4	2.5	1.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5)	71.6	7.9	4.4	11.3	2.5	0.0	2.2
	고등학교 졸업	(203)	42.1	27.7	3.0	15.2	2.0	9.3	0.6
	대학 재학/졸업	(668)	45.3	24.4	5.3	16.2	1.2	6.6	1.0
	대학원 재학 이상	(91)	58.3	20.1	5.6	8.2	0.0	7.9	0.0
소득	200만원 미만	(108)	42.6	20.1	3.9	20.1	1.7	9.4	2.2
	200~300만원	(148)	47.9	22.0	5.2	16.0	2.0	5.9	1.0
	300~400만원	(208)	42.1	28.6	5.7	15.0	0.4	7.5	0.6
	400~500만원	(171)	47.3	22.9	4.4	17.1	1.4	6.9	0.0
	500~600만원	(137)	53.6	21.5	4.3	9.4	1.8	8.4	1.0
	600만원 이상	(199)	46.9	27.0	4.8	12.5	1.5	6.3	1.0
	모름	(37)	58.4	12.4	5.3	21.7	0.0	0.0	2.3

## 다. 정신건강문제 경험률

### 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sup>1)</sup> 수

- 주요한 정신건강문제 13가지에 대한 경험률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2.2개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2.2%로 전년 대비 2.3%p 증가했으며, 미경험자는 37.8%임.
- 13개의 정신건강문제 중 ‘5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고위험군은 20.4%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함.

<그림 4>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수



1) 수일 간 지속되는 우울감,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등 13개의 항목의 경험 여부를 질문함.

## 응답자 특성

- ✓ 여성(경험률 66.6%, 평균 2.4개), 30대(경험률 70.4%, 평균 2.9개), 중학교 졸업 이하(경험률 70.3%, 평균 2.6개), 200만원 미만(경험률 69.4%, 평균 2.5개)에서 경험률이 높으며, 지난 1년간 경험한 평균 정신건강문제 수도 가장 많음.

[표 4]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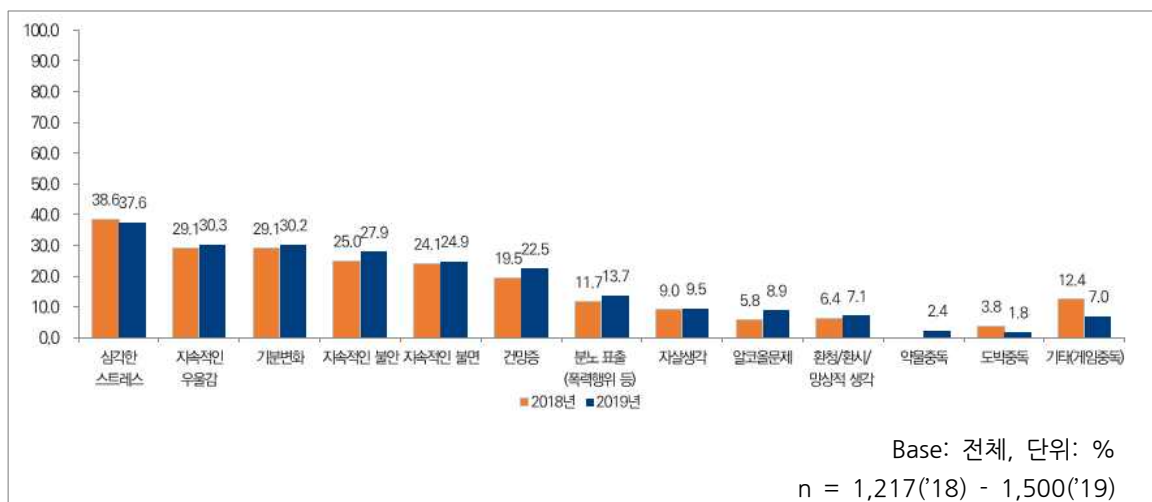
(단위: 명, %, 개)

		사례수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평균(개)
전체		(1,500)	37.8	14.6	10.8	8.9	7.5	20.4	2.2
성별	남성	(761)	42.1	15.3	10.4	8.5	5.0	18.7	2.1
	여성	(739)	33.4	13.9	11.2	9.4	10.1	22.0	2.4
연령	15~19세	(104)	35.2	17.7	12.1	4.7	7.4	22.8	2.3
	20대	(256)	30.9	13.7	12.1	10.0	8.5	24.9	2.7
	30대	(267)	29.6	9.3	11.0	13.6	8.1	28.4	2.9
	40대	(316)	40.2	13.3	9.1	8.4	8.7	20.3	2.2
	50대	(327)	46.8	17.9	8.7	6.9	5.8	13.9	1.7
	60대	(230)	40.1	17.5	13.8	7.9	6.6	14.1	1.8
지역	서울	(289)	41.6	8.9	10.1	6.6	10.5	22.3	2.4
	인천/경기	(470)	37.3	14.6	11.1	9.0	7.6	20.4	2.3
	충청권	(160)	32.3	15.7	9.9	12.3	8.8	21.0	2.4
	경상권	(375)	37.0	17.5	12.0	10.5	4.8	18.1	2.1
	전라권	(145)	38.8	15.0	9.3	5.9	5.8	25.2	2.3
	강원/제주	(61)	40.7	19.5	9.9	8.7	9.6	11.5	1.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29.7	17.6	16.8	5.2	7.3	23.4	2.6
	고등학교 졸업	(307)	41.6	13.0	9.2	7.8	7.4	20.9	2.2
	대학 재학/졸업	(986)	35.8	15.0	11.2	9.1	7.9	21.1	2.3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9.1	13.8	8.2	12.3	4.9	11.8	1.5
소득	200만원 미만	(108)	42.6	20.1	3.9	20.1	1.7	9.4	2.5
	200~300만원	(148)	47.9	22.0	5.2	16.0	2.0	5.9	2.4
	300~400만원	(208)	42.1	28.6	5.7	15.0	0.4	7.5	2.4
	400~500만원	(171)	47.3	22.9	4.4	17.1	1.4	6.9	2.1
	500~600만원	(137)	53.6	21.5	4.3	9.4	1.8	8.4	2.3
	600만원 이상	(199)	46.9	27.0	4.8	12.5	1.5	6.3	1.8
	모름	(37)	58.4	12.4	5.3	21.7	0.0	0.0	2.5

## 2)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 지난 1년간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은 경험으로 ‘심각한 스트레스’(3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 일간 지속된 우울감’(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30.2%) 순임.
- 전년 조사 대비 정신건강문제의 유형별 경험률이 대부분 소폭 증가함.  
(2018년 조사 항목에서는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문제’, ‘기타 중독(인터넷 등)’으로 질문함)

<그림 5>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표 5]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정신건강문제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8.8	28.6	31.8	29.1	30.3	1.2%p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29.9	30.9	31.0	29.1	30.2	1.1%p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폭력행위 등)	13.2	12.4	13.3	11.7	13.7	2.0%p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	25.2	24.1	26.5	25.0	27.9	2.9%p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	25.5	24.4	27.7	24.1	24.9	0.8%p
심각한 스트레스	39.3	37.6	39.9	38.6	37.6	-1.0%p
자살생각	14.4	9.7	9.0	9.0	9.5	0.5%p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21.8	19.6	21.3	19.5	22.5	3.0%p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6.5	9.2	5.3	6.4	7.1	0.7%p
알코올 문제	6.3	7.4	6.1	5.8	8.9	3.1%p
약물중독					2.4	-
도박중독	3.5	3.6	3.2	3.8	1.8	-2.0%p
기타 중독(게임 중독 등)	13.9	14.8	14.0	12.4	7.0	-5.4%p

## 응답자 특성

- ✓ 남성은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13.9%)이 높은 반면, 여성은 '수일 간 지속되는 우울감'(36.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34.6%), '수일 간 지속되는 불안'(32.4%), '수일 간 지속되는 불면'(27.3%), '심각한 스트레스'(41.6%), '자살생각'(10.6%)이 높음.
- ✓ 연령별로 '수일 간 지속되는 우울감'과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항목은 20~30대에서 높고,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 항목은 30~40대에서 높으며, '수일 간 지속되는 불안'은 30대 이하에서 높음. '수일 간 지속되는 불면' 항목은 30대에서 높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는 30대 이하에서 높고, '자살생각'은 20대 이하에서 높음.

[표 6]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

(단위: 명, %)

		사례수	수일 간 지속되는 우울감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	수일 간 지속되는 불안	수일 간 지속되는 불면	심각한 스트레스	자살생각
전체		(1,500)	30.3	30.2	13.7	27.9	24.9	37.6	9.5
성별	남성	(761)	24.6	26.0	13.9	23.5	22.6	33.7	8.5
	여성	(739)	36.2	34.6	13.5	32.4	27.3	41.6	10.6
연령	15~19세	(104)	32.5	36.5	12.6	33.0	18.1	45.6	14.0
	20대	(256)	38.9	38.8	12.5	33.6	28.5	44.5	13.5
	30대	(267)	37.1	38.7	21.5	35.4	35.7	49.5	9.8
	40대	(316)	30.2	30.7	15.9	26.0	23.5	36.2	10.2
	50대	(327)	20.9	20.4	9.3	21.4	17.3	26.8	6.2
	60대	(230)	25.6	21.3	9.6	22.1	24.3	29.9	6.5
학력	중학교 졸업	(79)	35.4	38.7	19.4	31.9	22.1	47.6	13.3
	고등학교 졸업	(307)	26.8	26.1	11.3	25.6	26.7	34.3	11.5
	대학 재학/졸업	(986)	32.5	31.9	14.3	29.7	25.4	39.0	9.1
	대학원 재학 이상	(129)	19.1	21.8	11.3	16.8	18.4	28.9	5.2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0.0	0.0	0.0	0.0	0.0	0.0	0.0
	1개	(219)	11.7	15.5	5.0	7.1	13.5	18.7	0.9
	2개	(162)	23.9	29.7	8.1	22.5	22.2	46.2	2.8
	3개	(134)	40.2	40.1	18.2	35.5	35.0	63.6	4.4
	4개	(113)	67.7	54.0	14.7	60.7	43.4	77.0	15.7
	5개 이상	(305)	85.4	84.0	46.0	81.9	69.4	90.5	36.9

## 응답자 특성

- ✓ 여성은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26.9%)가 높은 반면, 남성은 '환청·환시·망상적 생각'(8.1%), '알코올 문제'(13.4%), '약물중독 문제'(2.5%), '도박중독 문제'(2.6%), '기타(게임중독 등)'(7.3%) 항목에서 높음.
- ✓ 연령별로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항목은 20~30대에서 높고, '환청·환시·망상적 생각' 항목은 20대 이하에서 높으며, '알코올 문제'는 30대와 50대 이상이 높음. '약물중독 문제'는 30대(3.9%)가 높고, '도박중독 문제'는 30대와 50대가 2.4%로 가장 높으며, '기타(게임중독 등)' 항목은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음.

[표 7]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유형(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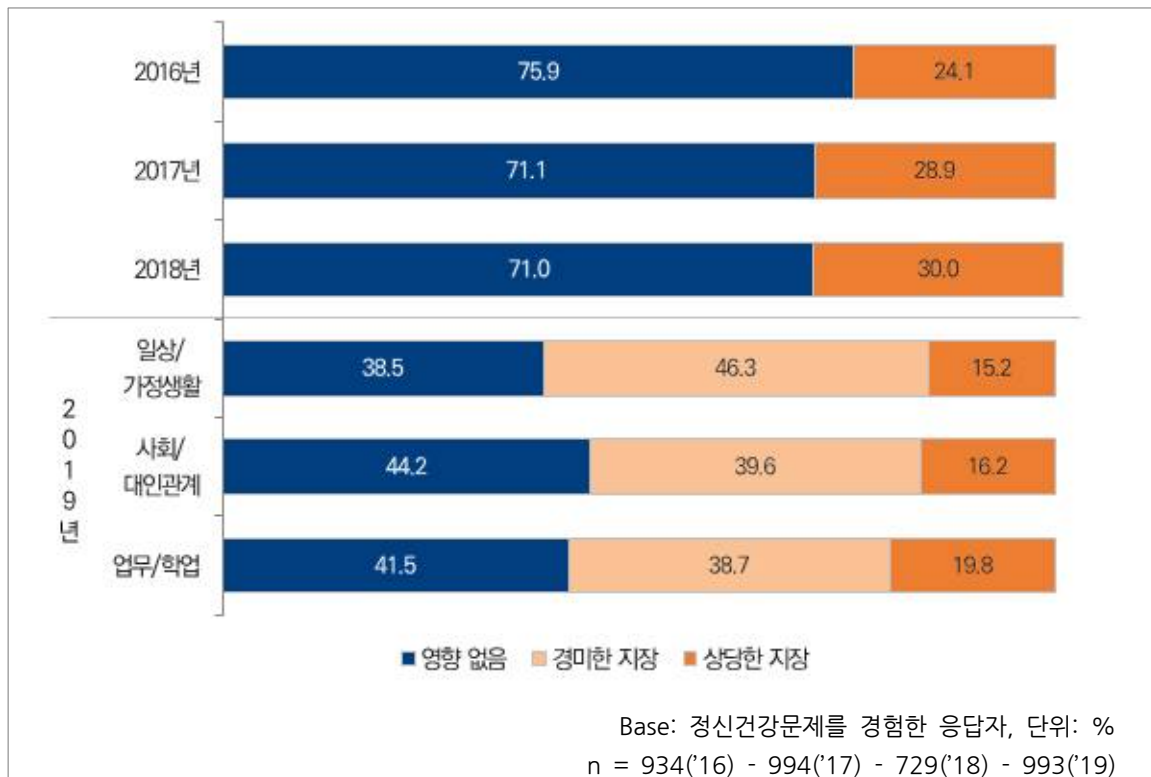
		사례수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환청/환시/ 망상적 생각	알코올 문제	약물 중독문제	도박 중독문제	기타 (게임중독 등)
전체		(1,500)	22.5	7.1	8.9	2.4	1.8	7.0
성별	남성	(761)	18.2	8.1	13.4	2.5	2.6	7.3
	여성	(739)	26.9	6.0	4.3	2.2	1.1	6.6
연령	15~19세	(104)	13.0	10.8	0.6	0.0	1.0	10.7
	20대	(256)	24.9	10.9	7.1	1.7	2.6	10.4
	30대	(267)	27.3	8.2	11.5	3.9	2.4	8.7
	40대	(316)	22.4	6.6	8.5	2.6	1.8	6.6
	50대	(327)	21.5	4.5	10.2	2.6	2.4	5.5
	60대	(230)	20.1	4.2	10.3	1.8	0.2	2.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16.0	16.4	0.8	0.0	3.8	9.9
	고등학교 졸업	(307)	25.0	7.1	10.1	4.7	2.3	5.7
	대학 재학/졸업	(986)	22.8	6.7	9.5	2.1	1.6	7.8
	대학원 재학 이상	(129)	17.4	4.1	6.3	0.0	1.0	2.2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0.0	0.0	7.0	1.2	1.5	4.4
	1개	(219)	14.1	1.9	10.0	3.0	1.8	7.7
	2개	(162)	25.8	1.8	12.7	4.7	3.2	14.6
	3개	(134)	33.7	6.7	0.0	0.0	0.0	0.0
	4개	(113)	31.8	8.6	10.5	0.4	0.7	0.0
	5개 이상	(305)	60.1	26.3	8.6	1.1	0.4	6.8

## 2.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경험자)

### 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의 제약 경험

-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상 및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및 학업’(58.5%),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55.8%) 순임.
- 2019년 조사에서는 ‘일상 및 사회생활’, ‘사회 및 대인관계’, ‘업무 및 학업’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함.

<그림 6>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경험





## 응답자 특성

✓ 고위험군 3명 중 1명 이상이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제약이 있다(31.2%, '큰 지장이 있다' 3.8% + '상당한 지장이 있다' 27.4%)고 응답함.

[표 8]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영향(제약)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제약 있음	큰 지장이 있음	상당한 지장이 있음	경미한 지장이 있음	영향 없음
전체		(933)	15.2	3.0	12.2	46.3	38.5
성별	남성	(441)	14.7	2.7	12.1	47.3	37.9
	여성	(492)	15.7	3.4	12.3	45.4	39.0
연령	15~19세	(67)	12.7	4.1	8.5	51.1	36.3
	20대	(177)	23.3	4.2	19.1	43.6	33.1
	30대	(188)	19.1	3.5	15.7	54.2	26.6
	40대	(189)	13.8	3.1	10.7	51.0	35.2
	50대	(174)	13.6	2.8	10.8	38.8	47.6
	60대	(138)	4.8	0.6	4.2	39.6	55.7
지역	서울	(169)	18.9	2.2	16.6	48.5	32.6
	인천/경기	(295)	13.0	3.8	9.2	48.3	38.7
	충청권	(108)	13.0	1.6	11.5	49.0	37.9
	경상권	(236)	16.4	3.0	13.4	42.8	40.8
	전라권	(89)	17.0	4.2	12.8	42.7	40.3
	강원/제주	(36)	10.7	2.5	8.3	42.7	46.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18.6	7.0	11.6	34.0	47.4
	고등학교 졸업	(179)	15.4	2.5	12.9	40.5	44.1
	대학 재학/졸업	(633)	15.2	3.0	12.2	50.1	34.7
	대학원 재학 이상	(66)	11.9	1.2	10.7	36.3	51.8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19)	9.4	4.1	5.3	21.6	69.0
	2개	(162)	3.6	0.8	2.8	36.3	60.1
	3개	(134)	9.5	4.7	4.8	60.1	30.4
	4개	(113)	6.9	0.0	6.9	61.4	31.7
	5개 이상	(305)	31.2	3.8	27.4	57.7	11.1

## 응답자 특성

✓ 고위험군 3명 중 1명 이상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해 제약이 있다(32.1%, '큰 지장이 있다' 9.8% + '상당한 지장이 있다' 22.3%)고 응답함.

[표 9]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제약)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제약 있음	큰 지장이 있음	상당한 지장이 있음	경미한 지장이 있음	영향 없음
전체		(933)	16.2	4.6	11.6	39.6	44.2
성별	남성	(441)	15.5	4.5	11.0	38.6	45.9
	여성	(492)	16.8	4.7	12.1	40.6	42.7
연령	15~19세	(67)	21.0	4.9	16.1	40.1	38.9
	20대	(177)	24.2	6.7	17.5	43.0	32.8
	30대	(188)	21.4	6.3	15.1	45.4	33.2
	40대	(189)	15.7	5.5	10.2	41.3	43.1
	50대	(174)	10.5	2.6	7.9	34.2	55.3
	60대	(138)	4.2	0.6	3.6	31.8	64.0
지역	서울	(169)	23.4	5.3	18.1	41.0	35.6
	인천/경기	(295)	12.1	4.1	8.0	40.3	47.6
	충청권	(108)	16.5	3.3	13.2	42.3	41.3
	경상권	(236)	16.9	5.3	11.6	38.2	44.9
	전라권	(89)	15.7	5.4	10.3	36.5	47.8
	강원/제주	(36)	11.2	2.5	8.7	36.8	5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24.7	11.5	13.2	35.1	40.2
	고등학교 졸업	(179)	16.3	2.3	14.0	37.5	46.1
	대학 재학/졸업	(633)	16.4	4.7	11.7	41.2	42.4
	대학원 재학 이상	(66)	5.9	3.7	2.2	33.8	60.3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19)	6.9	3.2	3.8	21.7	71.4
	2개	(162)	5.8	1.6	4.2	28.7	65.6
	3개	(134)	13.5	2.5	11.0	46.3	40.2
	4개	(113)	9.2	0.0	9.2	50.8	40.0
	5개 이상	(305)	32.1	9.8	22.3	51.3	16.7

## 응답자 특성

- ✓ 고위험군의 36.1%가 '업무 및 학업에 큰 제약이 있다'(36.1%, '큰 지장이 있다' 11.8% + '상당한 지장이 있다' 24.3%)고 응답함.

[표 10] 업무 및 학업에 대한 영향(제약)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제약 있음	큰 지장이 있음	상당한 지장이 있음	경미한 지장이 있음	영향 없음
전체		(933)	19.8	5.1	14.7	38.7	41.5
성별	남성	(441)	18.4	5.0	13.5	37.2	44.4
	여성	(492)	21.1	5.2	15.8	40.0	39.0
연령	15~19세	(67)	28.7	6.6	22.1	40.9	30.3
	20대	(177)	37.5	10.0	27.5	41.5	21.0
	30대	(188)	23.9	6.3	17.6	43.0	33.1
	40대	(189)	13.4	4.7	8.7	44.9	41.7
	50대	(174)	13.5	2.8	10.7	28.9	57.6
	60대	(138)	4.0	0.0	4.0	31.8	64.3
지역	서울	(169)	23.1	7.5	15.6	39.1	37.8
	인천/경기	(295)	16.8	4.6	12.2	41.4	41.8
	충청권	(108)	20.7	3.5	17.2	36.3	43.0
	경상권	(236)	21.4	4.9	16.5	36.3	42.3
	전라권	(89)	21.2	4.1	17.1	39.3	39.5
	강원/제주	(36)	12.2	7.1	5.1	36.3	51.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28.1	13.7	14.4	26.5	45.5
	고등학교 졸업	(179)	20.2	4.0	16.2	33.4	46.4
	대학 재학/졸업	(633)	19.7	4.9	14.8	41.5	38.7
	대학원 재학 이상	(66)	12.6	3.0	9.6	35.8	51.6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19)	9.4	2.5	7.0	25.1	65.4
	2개	(162)	9.5	0.6	8.9	28.0	62.5
	3개	(134)	15.2	3.4	11.8	50.2	34.6
	4개	(113)	16.0	0.6	15.4	46.0	37.9
	5개 이상	(305)	36.1	11.8	24.3	46.3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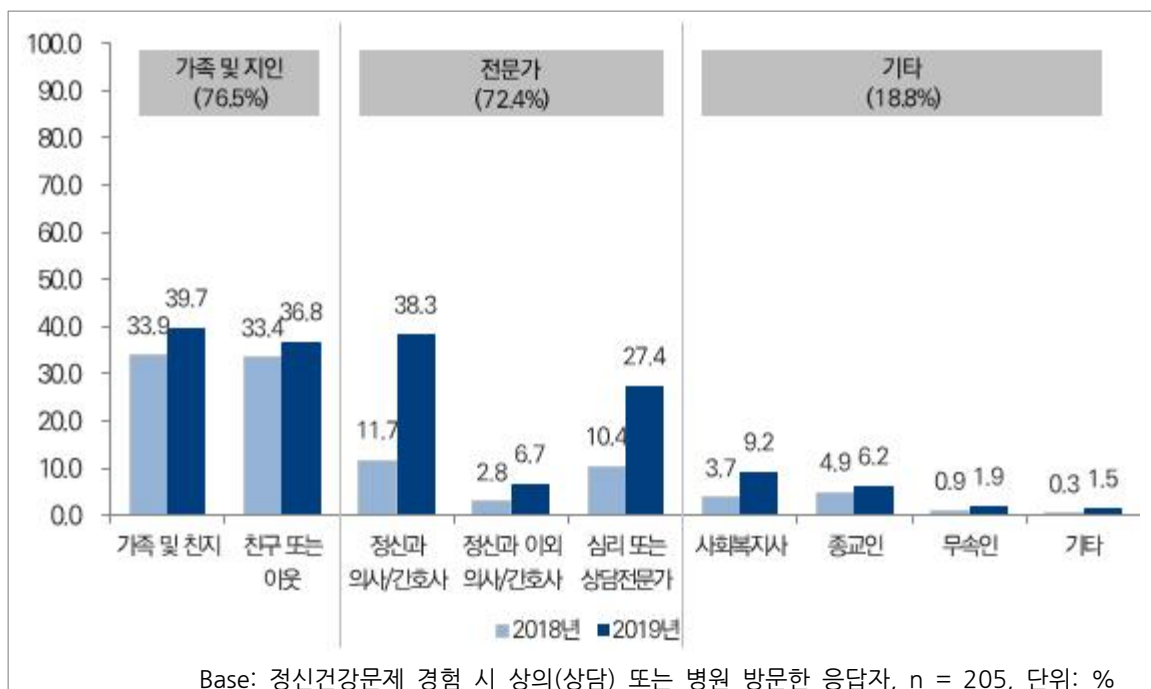
## 나.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및 대상

- 응답자의 22.0%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누군가와 상담(상의)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상의) 대상(n=205)은 ‘가족 및 친지’(39.7%)가 가장 높고,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38.3%), ‘친구 또는 이웃’(36.8%) 순임.
-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상의)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72.4%로 ‘가족 및 주변 지인’(76.5%)에 비해 낮음.

<그림 7>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그림 8> 상의(상담) 혹은 병원치료 대상(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

- ✓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남성은 '정신과 진료'(43.3%)를 받았다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가족 및 친지'(46.8%)와 상담했다는 비율이 높음.
- ✓ 10대(62.0%)는 '심리/상담 전문가', 20대(45.3%)와 60대(46.2%)는 '친구 또는 이웃', 30대(43.7%)와 40대(48.2%)는 '가족 및 친지', 50대는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와 상담했다는 의견이 높음.

[표 11]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및 대상

(단위: 명, %)

		사례수	없다	있다	가족/친지	친구/이웃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전문가
전체		(933)	78.0	22.0	39.7	36.8	9.2	27.4
성별	남성	(441)	80.1	19.9	30.2	37.1	14.1	37.4
	여성	(492)	76.1	23.9	46.8	36.7	5.5	19.9
연령	15~19세	(67)	78.1	21.9	46.7	27.8	0.0	62.0
	20대	(177)	68.5	31.5	37.7	45.3	20.7	37.0
	30대	(188)	77.0	23.0	43.7	39.6	10.5	29.2
	40대	(189)	79.7	20.3	48.2	33.0	4.1	16.2
	50대	(174)	81.7	18.3	29.1	20.8	2.1	16.2
	60대	(138)	84.7	15.3	32.6	46.2	2.4	10.9
지역	서울	(169)	73.9	26.1	42.6	34.4	17.3	48.8
	인천/경기	(295)	77.9	22.1	31.9	36.5	11.1	22.4
	충청권	(108)	75.6	24.4	42.1	38.4	2.5	15.3
	경상권	(236)	81.7	18.3	47.3	37.8	2.7	27.6
	전라권	(89)	77.4	22.6	36.3	39.2	7.3	20.3
	강원/제주	(36)	82.0	18.0	49.4	36.8	10.2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78.8	21.2	32.7	24.0	5.7	64.7
	고등학교 졸업	(179)	81.2	18.8	37.0	38.7	11.2	16.4
	대학 재학/졸업	(633)	77.1	22.9	42.3	38.4	9.9	26.1
	대학원 재학 이상	(66)	76.9	23.1	26.0	27.3	0.0	34.5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19)	87.8	12.2	37.1	28.7	9.6	13.0
	2개	(162)	83.5	16.5	35.8	59.4	4.4	4.9
	3개	(134)	82.0	18.0	34.2	40.0	5.4	25.3
	4개	(113)	82.4	17.6	44.1	18.3	0.0	36.3
	5개 이상	(305)	64.7	35.3	41.8	36.0	12.8	35.3

[이어짐]

[표 12]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경험 및 대상(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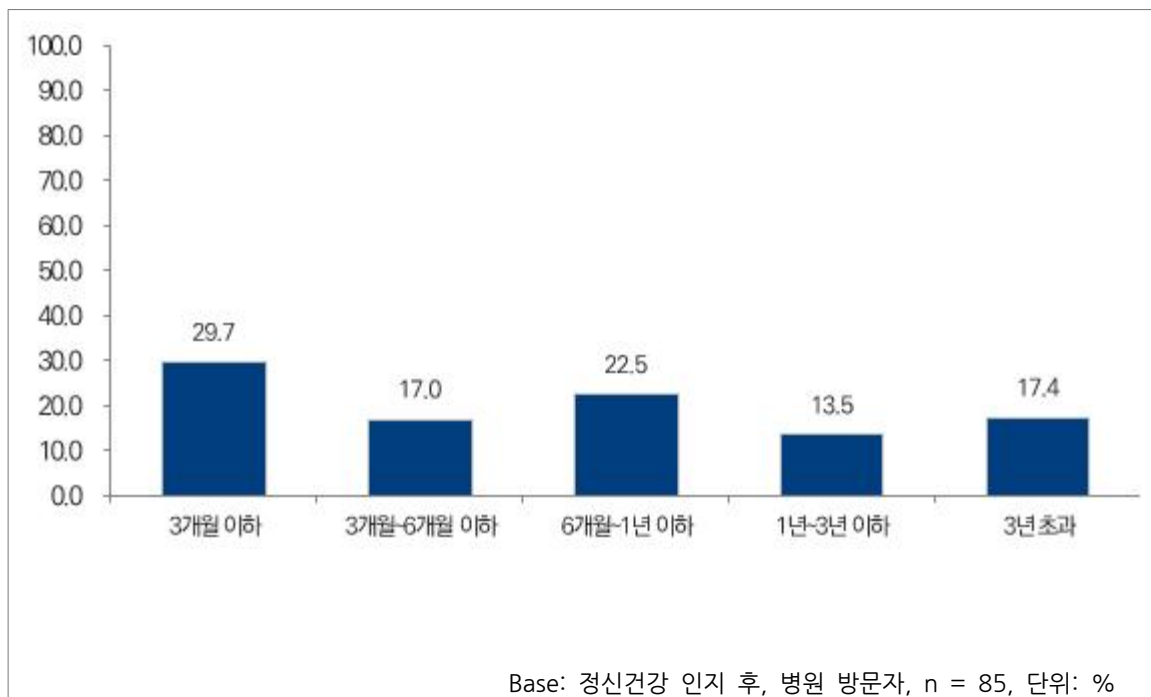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없음	있음	정신과 진료	정신과 이외 진료	종교인	무속인	기타
전체		(933)	78.0	22.0	38.3	6.7	6.2	1.9	1.5
성별	남성	(441)	80.1	19.9	43.3	8.7	7.5	2.9	0.7
	여성	(492)	76.1	23.9	34.6	5.1	5.2	1.2	2.2
연령	15~19세	(67)	78.1	21.9	32.4	6.8	0.0	0.0	8.8
	20대	(177)	68.5	31.5	36.9	7.0	4.3	2.3	3.4
	30대	(188)	77.0	23.0	27.2	2.9	9.6	2.9	0.0
	40대	(189)	79.7	20.3	41.0	2.3	5.7	2.3	0.0
	50대	(174)	81.7	18.3	58.4	13.4	5.8	0.0	0.0
	60대	(138)	84.7	15.3	34.0	11.0	9.9	2.4	0.0
지역	서울	(169)	73.9	26.1	31.5	8.7	8.7	5.8	2.9
	인천/경기	(295)	77.9	22.1	33.0	8.6	2.0	0.0	2.0
	충청권	(108)	75.6	24.4	42.9	6.0	3.3	3.3	0.0
	경상권	(236)	81.7	18.3	40.1	6.2	6.1	1.2	1.4
	전라권	(89)	77.4	22.6	55.6	0.0	20.2	0.0	0.0
	강원/제주	(36)	82.0	18.0	53.9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78.8	21.2	21.3	8.5	0.0	0.0	11.1
	고등학교 졸업	(179)	81.2	18.8	40.8	7.3	11.9	0.0	1.8
	대학 재학/졸업	(633)	77.1	22.9	38.1	7.1	6.0	2.7	0.9
	대학원 재학 이상	(66)	76.9	23.1	48.4	0.0	0.0	0.0	0.0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19)	87.8	12.2	33.6	0.0	0.0	0.0	0.0
	2개	(162)	83.5	16.5	40.2	1.9	12.9	1.9	0.0
	3개	(134)	82.0	18.0	24.8	9.2	8.8	0.0	0.0
	4개	(113)	82.4	17.6	35.0	5.1	4.3	0.0	0.0
	5개 이상	(305)	64.7	35.3	42.7	9.2	5.8	3.2	2.9

## 나.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

- 본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치료(약물 포함)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이하'(29.7%)가 가장 높으며, '1년 이내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69.2%, '1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는 30.9%임.

<그림 9>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병원 방문자 대상)



## 응답자 특성

✓ 6개월 이내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여성(52.0%)이 남성(41.0%)에 비해 높음.

[표 13] 정신건강문제 인지 후, 치료까지의 기간(병원 진료 대상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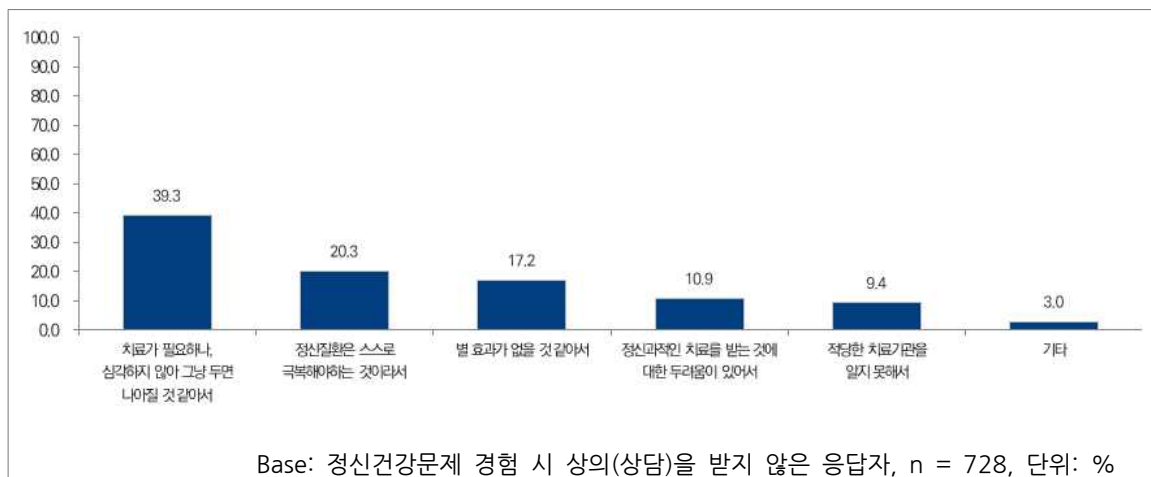
		사례수	1년 이내	3개월 이하	3개월~ 6개월이하	6개월~ 1년 이하	1년 초과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전체		(85)	69.2	29.7	17.0	22.5	30.9	13.5	17.4
성별	남성	(41)	68.4	21.2	19.8	27.4	31.6	11.9	19.7
	여성	(44)	69.9	37.5	14.5	17.9	30.1	14.9	15.2
연령	15~19세	(5)	58.2	58.2	0.0	0.0	41.8	0.0	41.8
	20대	(21)	68.2	20.2	15.7	32.3	31.9	23.8	8.1
	30대	(12)	73.9	18.1	34.7	21.1	26.1	0.0	26.1
	40대	(17)	56.5	22.9	14.7	18.9	43.5	18.0	25.5
	50대	(22)	77.6	40.0	18.9	18.7	22.4	16.2	6.2
	60대	(9)	73.5	38.5	5.6	29.4	26.5	0.0	26.5
지역	서울	(14)	90.8	36.9	17.5	36.4	9.2	0.0	9.2
	인천/경기	(26)	76.0	43.3	17.2	15.5	24.0	5.2	18.8
	충청권	(13)	45.6	0.0	28.1	17.5	54.3	21.3	33.0
	경상권	(18)	67.5	28.8	18.3	20.4	32.6	23.2	9.4
	전라권	(11)	67.7	24.0	6.4	37.3	32.3	12.4	19.9
	강원/제주	(4)	32.7	32.7	0.0	0.0	67.2	53.0	14.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60.0	60.0	0.0	0.0	40.0	0.0	40.0
	고등학교 졸업	(15)	46.6	21.0	13.7	11.9	53.4	27.3	26.1
	대학 재학/졸업	(60)	74.6	28.1	17.6	28.9	25.4	9.1	16.3
	대학원 재학 이상	(7)	74.9	50.0	24.9	0.0	25.0	25.0	0.0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9)	88.9	48.7	30.7	9.5	11.1	0.0	11.1
	2개	(11)	59.5	44.3	0.0	15.2	40.6	6.7	33.9
	3개	(8)	88.9	25.9	19.9	43.1	11.0	0.0	11.0
	4개	(7)	60.9	48.5	0.0	12.4	39.1	14.4	24.7
	5개 이상	(50)	65.5	21.1	20.1	24.3	34.5	19.5	15.0



## 다.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상의)을 받지 않은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나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가 39.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20.3%),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2%) 순임.

<그림 10>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응답자 특성

- ✓ 15~19세와 50~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4]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적당한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728)	39.3	20.3	10.9	9.4	17.2	3.0
성별	남성	(353)	39.4	21.5	9.9	9.5	17.3	2.4
	여성	(375)	39.2	19.1	11.8	9.3	17.1	3.5
연령	15~19세	(53)	46.4	6.2	10.7	9.8	19.5	7.4
	20대	(121)	32.9	16.3	13.2	14.4	21.7	1.5
	30대	(145)	36.3	16.5	12.4	14.1	19.4	1.3
	40대	(150)	37.1	25.9	11.0	8.6	15.6	1.8
	50대	(142)	44.9	21.2	9.2	5.7	13.5	5.5
	60대	(117)	42.5	26.7	8.5	3.8	15.5	3.0
지역	서울	(125)	44.0	12.4	12.2	12.0	18.4	1.0
	인천/경기	(230)	37.5	24.9	7.0	6.7	19.5	4.4
	충청권	(82)	37.9	25.2	8.5	10.0	14.8	3.8
	경상권	(193)	38.8	20.2	15.3	8.7	14.8	2.1
	전라권	(69)	38.3	14.2	12.1	14.9	17.5	3.1
	강원/제주	(30)	43.1	18.1	10.8	9.1	16.5	2.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4)	40.7	12.5	12.1	9.5	22.3	3.0
	고등학교 졸업	(145)	36.7	21.4	11.9	8.2	20.1	1.8
	대학 재학/졸업	(488)	40.0	20.0	10.8	10.0	15.8	3.3
	대학원 재학 이상	(51)	38.5	25.8	7.9	6.6	18.7	2.6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1개	(246)	45.3	20.7	9.0	8.4	13.4	3.2
	2개	(358)	36.5	21.8	11.7	8.9	17.9	3.2
	3개	(124)	35.4	14.9	12.3	12.7	23.0	1.7
	4개	(192)	43.3	18.7	6.6	6.9	21.5	3.0
	5개 이상	(135)	45.1	19.2	7.3	9.3	12.6	6.5

### 3. 정신건강 상태(정신건강문제 미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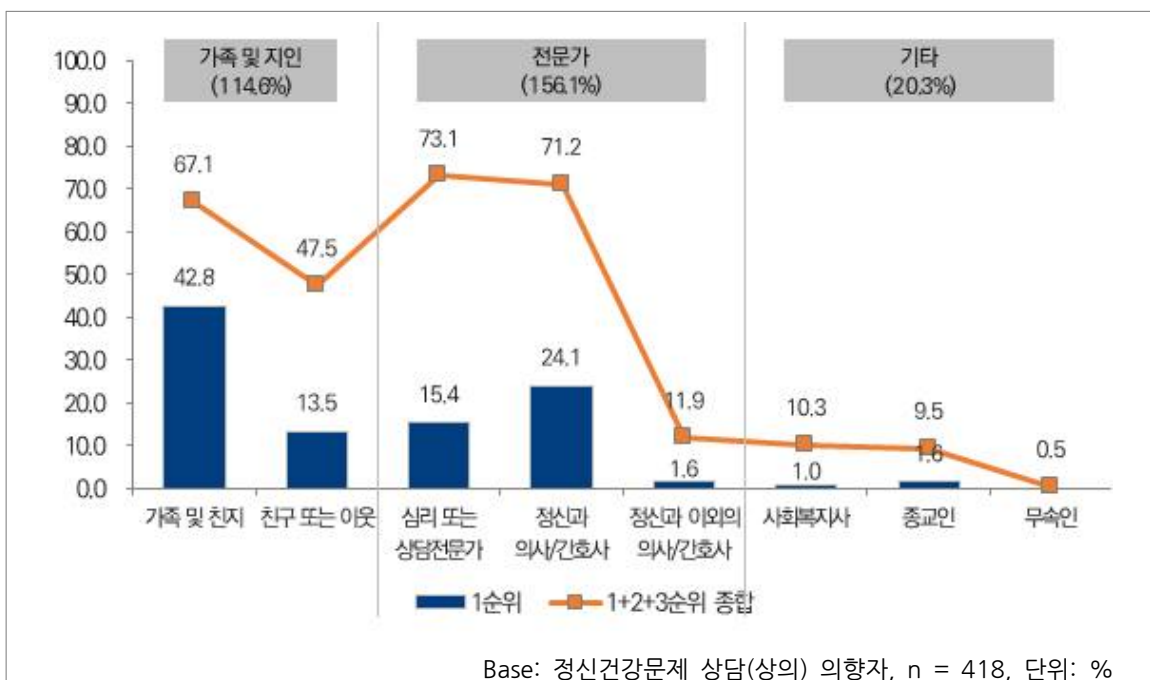
#### 가.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 지난 1년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73.7%가 앞으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면, 주변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상담(상의) 대상으로는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종합 73.1%)가 가장 높고,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71.2%), ‘가족 및 친지’(67.1%) 순임.

<그림 11>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그림 12> 상의(상담) 대상



## 응답자 특성

✓ 대체로 '가족 및 친지'와 먼저 상의(상담)를 하겠다는 비율이 높음.

[표 15]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가족/친지	친구/이웃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전문가
전체		(567)	26.3	73.7	42.8	13.5	1.0	15.4
성별	남성	(320)	31.5	68.5	45.0	10.8	1.3	14.4
	여성	(247)	19.5	80.5	40.4	16.5	0.6	16.6
연령	15~19세	(37)	33.6	66.4	56.9	20.8	0.0	4.1
	20대	(79)	29.8	70.2	38.2	13.9	0.0	21.6
	30대	(79)	31.4	68.6	45.9	15.1	1.5	11.0
	40대	(127)	25.2	74.8	43.6	16.7	0.7	14.8
	50대	(153)	17.7	82.3	39.7	8.9	1.0	16.3
	60대	(92)	31.8	68.2	43.7	13.2	2.1	17.5
지역	서울	(120)	21.4	78.6	49.8	12.2	1.4	13.5
	인천/경기	(175)	22.8	77.2	40.6	18.4	1.0	11.5
	충청권	(52)	27.1	72.9	41.9	18.5	0.0	12.4
	경상권	(139)	32.2	67.8	37.8	8.3	0.0	25.2
	전라권	(56)	31.8	68.2	48.8	10.3	2.1	12.4
	강원/제주	(25)	26.7	73.3	38.0	7.1	3.7	17.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21.8	78.2	65.5	7.0	4.4	12.5
	고등학교 졸업	(128)	25.9	74.1	50.4	16.1	1.4	13.2
	대학 재학/졸업	(353)	26.7	73.3	38.5	13.4	0.8	16.7
	대학원 재학 이상	(63)	26.3	73.7	42.5	11.4	0.0	14.3

[표 16]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순위, 계속)

(단위: 명, %)

		사례수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정신과 진료	정신과 이외 진료	종교인	무속인	기타
전체		(567)	26.3	73.7	24.1	1.6	1.6	0.0	0.0
성별	남성	(320)	31.5	68.5	25.4	1.1	2.0	0.0	0.0
	여성	(247)	19.5	80.5	22.6	2.2	1.1	0.0	0.0
연령	15~19세	(37)	33.6	66.4	10.2	8.0	0.0	0.0	0.0
	20대	(79)	29.8	70.2	22.9	0.0	3.3	0.0	0.0
	30대	(79)	31.4	68.6	25.1	1.5	0.0	0.0	0.0
	40대	(127)	25.2	74.8	19.6	1.8	2.7	0.0	0.0
	50대	(153)	17.7	82.3	30.5	1.8	1.7	0.0	0.0
	60대	(92)	31.8	68.2	23.5	0.0	0.0	0.0	0.0
지역	서울	(120)	21.4	78.6	23.1	0.0	0.0	0.0	0.0
	인천/경기	(175)	22.8	77.2	22.8	2.9	2.9	0.0	0.0
	충청권	(52)	27.1	72.9	25.0	2.1	0.0	0.0	0.0
	경상권	(139)	32.2	67.8	25.7	1.1	2.0	0.0	0.0
	전라권	(56)	31.8	68.2	22.5	1.7	2.2	0.0	0.0
	강원/제주	(25)	26.7	73.3	31.6	2.2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21.8	78.2	3.6	7.0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128)	25.9	74.1	18.1	0.0	0.9	0.0	0.0
	대학 재학/졸업	(353)	26.7	73.3	27.5	1.5	1.7	0.0	0.0
	대학원 재학 이상	(63)	26.3	73.7	25.4	3.6	2.8	0.0	0.0

## 응답자 특성

- ✓ 3순위까지 종합하면, 15~19세는 '가족 및 친지', 20~40대는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 50~60대는 '정신과 진료'를 통해 상의(상담)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음.

[표 17]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2+3순위 종합)

(단위: 명, %)

		사례수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가족/친지	친구/이웃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전문가
전체		(567)	26.3	73.7	67.1	47.5	10.3	73.1
성별	남성	(320)	31.5	68.5	70.3	45.4	12.6	70.1
	여성	(247)	19.5	80.5	63.5	49.8	7.8	76.3
연령	15~19세	(37)	33.6	66.4	83.2	67.9	18.3	79.2
	20대	(79)	29.8	70.2	73.7	50.3	7.4	79.6
	30대	(79)	31.4	68.6	67.8	61.5	10.8	71.2
	40대	(127)	25.2	74.8	66.2	50.4	13.6	73.8
	50대	(153)	17.7	82.3	59.3	40.2	9.0	66.6
	60대	(92)	31.8	68.2	71.6	35.3	7.0	78.1
지역	서울	(120)	21.4	78.6	67.4	52.4	8.2	66.1
	인천/경기	(175)	22.8	77.2	67.9	49.4	10.1	73.7
	충청권	(52)	27.1	72.9	71.0	53.1	4.6	69.3
	경상권	(139)	32.2	67.8	65.6	40.6	14.2	77.4
	전라권	(56)	31.8	68.2	66.9	44.0	14.5	73.6
	강원/제주	(25)	26.7	73.3	59.5	39.4	5.5	88.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21.8	78.2	88.6	49.3	15.1	83.9
	고등학교 졸업	(128)	25.9	74.1	64.8	49.5	5.6	74.9
	대학 재학/졸업	(353)	26.7	73.3	66.5	46.2	12.2	72.8
	대학원 재학 이상	(63)	26.3	73.7	66.9	50.0	7.6	66.5

[표 18] 상의(상담) 혹은 병원 방문 의향 및 대상(1+2+3순위 종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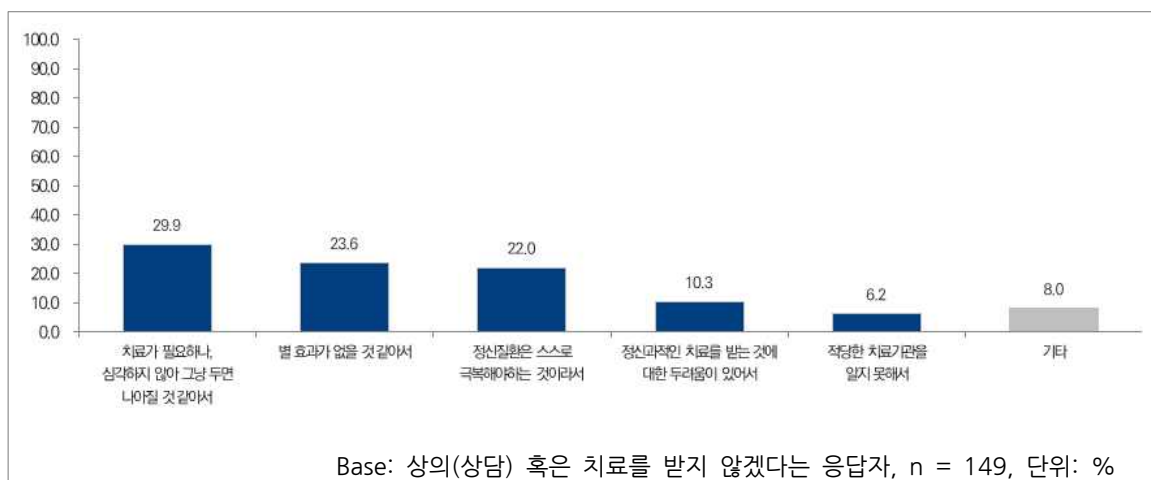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정신과 진료	정신과 이외 진료	종교인	무속인	기타
전체		(567)	26.3	73.7	71.2	11.9	9.5	0.5	0.0
성별	남성	(320)	31.5	68.5	74.5	10.6	8.2	0.6	0.0
	여성	(247)	19.5	80.5	67.5	13.4	10.8	0.5	0.0
연령	15~19세	(37)	33.6	66.4	37.2	10.0	4.1	0.0	0.0
	20대	(79)	29.8	70.2	60.2	13.8	8.0	0.0	0.0
	30대	(79)	31.4	68.6	68.6	4.8	6.0	1.8	0.0
	40대	(127)	25.2	74.8	66.7	8.5	10.3	0.0	0.0
	50대	(153)	17.7	82.3	81.9	16.2	14.5	1.0	0.0
	60대	(92)	31.8	68.2	81.6	13.9	4.4	0.0	0.0
지역	서울	(120)	21.4	78.6	73.3	16.4	8.2	1.3	0.0
	인천/경기	(175)	22.8	77.2	70.6	9.6	10.4	0.7	0.0
	충청권	(52)	27.1	72.9	75.9	9.1	6.9	0.0	0.0
	경상권	(139)	32.2	67.8	72.1	11.7	7.2	0.0	0.0
	전라권	(56)	31.8	68.2	62.2	11.6	16.7	0.0	0.0
	강원/제주	(25)	26.7	73.3	69.0	14.1	11.2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21.8	78.2	44.8	14.0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128)	25.9	74.1	73.8	16.2	8.3	0.0	0.0
	대학 재학/졸업	(353)	26.7	73.3	71.9	9.6	9.7	0.9	0.0
	대학원 재학 이상	(63)	26.3	73.7	72.2	15.6	14.3	0.0	0.0

## 나.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 상담(상의)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나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가 29.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3.6%), ‘정신질환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22.0%),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10.3%), ‘적당한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6.2%) 순임.

<그림 13>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 응답자 특성

- ✓ 30대 이상에서는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는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라는 비율이 높음.

[표 19]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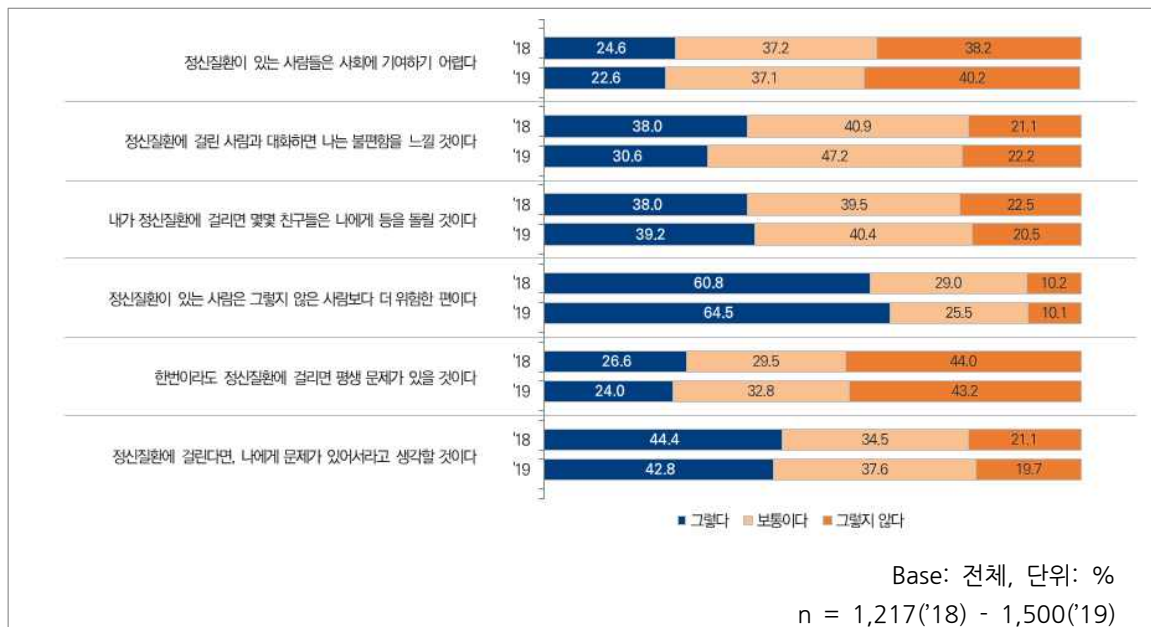
		사례수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적당한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49)	29.9	22.0	10.3	6.2	23.6	8.0
성별	남성	(101)	27.7	24.5	11.2	6.1	22.3	8.1
	여성	(48)	34.4	16.8	8.4	6.2	26.4	7.7
연령	15~19세	(12)	15.9	12.2	18.6	20.7	8.1	24.4
	20대	(24)	16.9	31.2	19.1	0.0	19.7	13.1
	30대	(25)	34.1	22.0	3.2	10.2	30.6	0.0
	40대	(32)	35.0	13.3	14.8	4.1	27.6	5.2
	50대	(27)	39.7	23.3	3.2	0.0	23.2	10.6
	60대	(29)	28.1	27.1	7.3	9.7	23.4	4.5
지역	서울	(26)	30.0	10.1	14.9	5.1	34.9	5.1
	인천/경기	(40)	35.8	19.6	8.8	6.4	21.4	8.0
	충청권	(14)	17.9	16.7	18.5	6.1	21.8	19.0
	경상권	(45)	28.0	30.5	8.7	6.4	20.0	6.4
	전라권	(18)	27.6	26.4	8.4	9.1	24.3	4.2
	강원/제주	(7)	38.1	25.1	0.0	0.0	20.1	16.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25.3	15.7	19.7	0.0	19.7	19.7
	고등학교 졸업	(33)	18.9	24.6	6.6	7.8	32.6	9.5
	대학 재학/졸업	(94)	31.8	20.7	12.2	7.0	20.0	8.3
	대학원 재학 이상	(17)	42.1	26.1	4.3	0.0	27.6	0.0

##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 가.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대한 1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②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③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 ④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함.
- 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64.5%), ‘정신질환에 걸리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42.8%),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39.2%),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30.6%),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22.6%)의 6개 문항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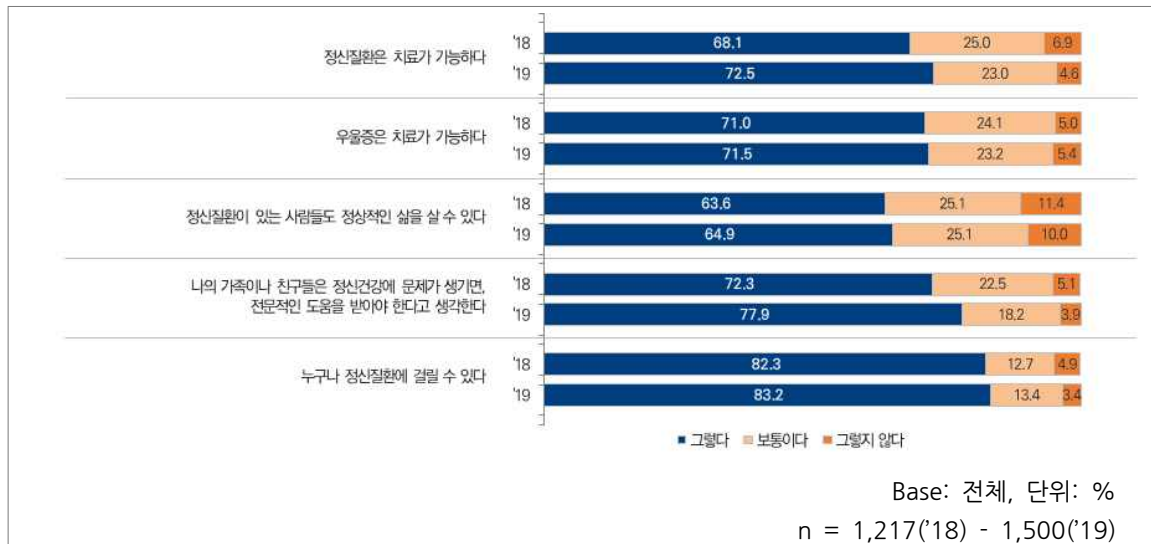
<그림 14>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②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는 5개 문항으로 분류되며,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항목에 83.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77.9%),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72.5%),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71.5%),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64.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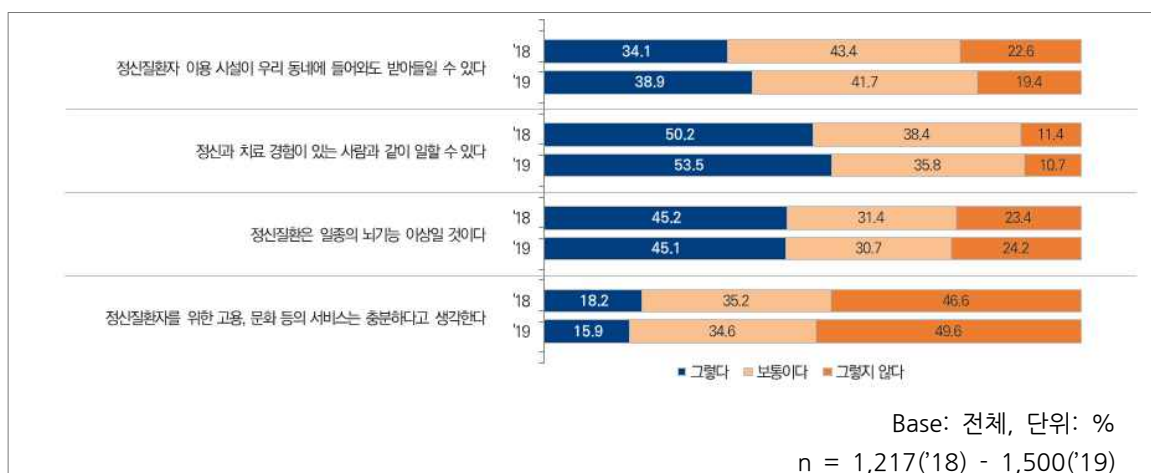
- 전년 조사 대비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함.

<그림 15>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 ③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은 3개 문항으로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53.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45.1%),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38.9%)임.
- ④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항목으로 동의율은 15.9%에 불과함.

<그림 16>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_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성



## 응답자 특성

✓ 대체로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20] 정신건강(질환) 인식\_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83.2	25.4	57.8	13.4	3.4	2.8	0.6
성별	남성	(761)	80.0	22.5	57.5	16.4	3.6	3.0	0.6
	여성	(739)	86.5	28.4	58.1	10.3	3.3	2.7	0.6
연령	15~19세	(104)	86.4	48.2	38.2	9.7	3.8	1.9	1.9
	20대	(256)	84.2	40.3	43.9	14.1	1.7	1.0	0.7
	30대	(267)	86.1	31.0	55.1	11.6	2.3	2.0	0.3
	40대	(316)	81.9	21.8	60.1	14.9	3.1	3.1	0.0
	50대	(327)	79.9	13.1	66.8	15.9	4.1	3.2	0.9
	60대	(230)	83.6	14.4	69.2	10.6	5.8	5.4	0.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85.5	42.2	43.3	9.3	5.2	2.9	2.3
	고등학교 졸업	(307)	76.2	19.6	56.6	19.3	4.5	3.6	0.9
	대학 재학/졸업	(986)	84.5	26.2	58.3	12.3	3.2	2.8	0.4
	대학원 재학 이상	(129)	88.0	22.7	65.3	10.4	1.5	1.5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4.3	25.3	59.0	11.8	3.9	3.3	0.6
	보통	(621)	79.9	21.8	58.1	17.3	2.7	2.2	0.5
	나쁘다	(178)	90.1	38.5	51.6	6.2	3.8	3.2	0.6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79.4	19.5	59.9	17.8	2.8	2.5	0.3
	1개	(219)	82.2	22.6	59.6	12.7	5.1	4.2	0.9
	2개	(162)	86.0	24.7	61.3	7.3	6.6	5.4	1.2
	3개	(134)	85.8	25.0	60.8	12.1	2.1	1.4	0.7
	4개	(113)	89.4	33.3	56.1	7.2	3.4	2.3	1.1
	5개 이상	(305)	85.9	36.0	49.9	11.7	2.3	2.0	0.3

### 응답자 특성

- ✓ 남성(47.2%)이 여성(43.0%)에 비해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 40대 이상에서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21]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45.1	6.1	39.0	30.7	24.1	22.2	1.9
성별	남성	(761)	47.2	7.2	40.0	31.0	21.8	19.6	2.2
	여성	(739)	43.0	5.0	38.0	30.4	26.6	24.9	1.7
연령	15~19세	(104)	34.2	9.8	24.4	42.1	23.7	16.3	7.4
	20대	(256)	36.4	8.8	27.6	29.6	34.0	31.2	2.8
	30대	(267)	37.5	4.5	33.0	34.1	28.4	26.7	1.7
	40대	(316)	44.7	5.5	39.2	32.9	22.5	21.7	0.8
	50대	(327)	55.0	5.0	50.0	26.0	19.0	17.6	1.4
	60대	(230)	55.1	5.6	49.5	26.7	18.2	17.0	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1.8	11.2	30.6	34.2	24.0	15.4	8.6
	고등학교 졸업	(307)	50.2	3.7	46.5	26.8	23.1	21.4	1.7
	대학 재학/졸업	(986)	43.2	6.0	37.2	31.7	25.2	23.5	1.7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9.8	9.7	40.1	30.7	19.6	19.0	0.6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49.7	7.8	41.9	27.9	22.4	20.2	2.2
	보통	(621)	42.1	3.8	38.3	34.0	23.9	23.0	0.9
	나쁘다	(178)	37.5	7.3	30.2	30.6	31.8	27.4	4.4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49.8	6.2	43.6	30.9	19.3	17.5	1.8
	1개	(219)	43.0	5.9	37.1	30.3	26.7	24.9	1.8
	2개	(162)	42.5	4.9	37.6	32.6	24.9	22.2	2.7
	3개	(134)	43.9	8.1	35.8	27.4	28.7	27.2	1.5
	4개	(113)	35.9	6.0	29.9	36.0	28.0	26.2	1.8
	5개 이상	(305)	43.2	5.7	37.5	29.3	27.5	25.4	2.1

## 응답자 특성

- ✓ 여성(74.7%)이 남성(70.3%)에 비해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22]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72.5	14.4	58.1	23.0	4.5	3.6	0.9
성별	남성	(761)	70.3	15.3	55.0	25.1	4.6	3.3	1.3
	여성	(739)	74.7	13.4	61.3	20.8	4.5	4.0	0.5
연령	15~19세	(104)	68.8	22.1	46.7	24.2	7.0	5.4	1.6
	20대	(256)	70.1	20.8	49.3	23.5	6.5	5.3	1.2
	30대	(267)	69.2	12.8	56.4	26.7	4.0	3.7	0.3
	40대	(316)	71.4	11.3	60.1	26.6	2.1	1.8	0.3
	50대	(327)	79.9	14.2	65.7	17.3	2.9	2.2	0.7
	60대	(230)	71.6	10.1	61.5	20.8	7.6	5.5	2.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4.3	23.5	40.8	22.5	13.3	9.5	3.8
	고등학교 졸업	(307)	72.6	14.1	58.5	23.1	4.3	3.1	1.2
	대학 재학/졸업	(986)	72.3	13.7	58.6	23.5	4.1	3.4	0.7
	대학원 재학 이상	(129)	78.1	14.5	63.6	18.8	3.0	3.0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78.5	17.6	60.9	17.0	4.5	3.2	1.3
	보통	(621)	67.8	11.4	56.4	28.1	4.2	3.7	0.5
	나쁘다	(178)	65.0	12.2	52.8	28.8	6.1	5.4	0.7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74.9	13.7	61.2	23.0	2.1	1.8	0.3
	1개	(219)	74.2	13.0	61.2	19.9	5.9	4.0	1.9
	2개	(162)	78.0	17.2	60.8	14.7	7.2	4.7	2.5
	3개	(134)	79.9	16.7	63.2	18.4	1.7	1.7	0.0
	4개	(113)	63.9	11.7	52.2	29.6	6.5	5.4	1.1
	5개 이상	(305)	63.6	15.0	48.6	29.2	7.3	6.5	0.8

## 응답자 특성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의견에 여성(66.3%), 30대(68.0%), 대학원 재학 이상(68.8%)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65.0	11.9	53.1	25.1	10.0	8.9	1.1
성별	남성	(761)	63.6	12.4	51.2	25.7	10.7	9.6	1.1
	여성	(739)	66.3	11.4	54.9	24.4	9.3	8.2	1.1
연령	15~19세	(104)	63.9	25.5	38.4	23.5	12.8	10.2	2.6
	20대	(256)	66.1	19.5	46.6	25.0	8.8	6.8	2.0
	30대	(267)	68.0	12.4	55.6	23.3	8.7	8.2	0.5
	40대	(316)	62.1	7.3	54.8	28.3	9.6	8.9	0.7
	50대	(327)	65.5	8.4	57.1	24.1	10.3	9.4	0.9
	60대	(230)	63.5	7.8	55.7	25.0	11.6	10.8	0.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2.5	22.7	39.8	21.6	15.8	12.7	3.1
	고등학교 졸업	(307)	58.7	12.3	46.4	27.9	13.3	12.1	1.2
	대학 재학/졸업	(986)	66.6	11.2	55.4	25.2	8.3	7.3	1.0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8.8	9.7	59.1	19.6	11.6	11.6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70.0	13.4	56.6	20.3	9.7	8.3	1.4
	보통	(621)	58.5	9.1	49.4	31.1	10.3	9.5	0.8
	나쁘다	(178)	67.5	15.7	51.8	22.9	9.8	9.2	0.6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64.2	12.2	52.0	28.1	7.6	6.9	0.7
	1개	(219)	66.7	11.3	55.4	24.4	8.9	7.5	1.4
	2개	(162)	67.8	9.4	58.4	16.4	15.9	15.3	0.6
	3개	(134)	75.9	11.7	64.2	16.8	7.4	7.4	0.0
	4개	(113)	61.9	9.9	52.0	27.0	11.0	7.8	3.2
	5개 이상	(305)	59.8	13.8	46.0	27.3	12.8	11.3	1.5

## 응답자 특성

- ✓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여성(39.0%), 15~19세(56.9%), '중졸 이하'(44.7%)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24] 정신건강(질환) 인식\_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23.9	2.7	21.2	32.8	43.3	37.3	6.0
성별	남성	(761)	24.4	2.6	21.8	33.9	41.7	35.6	6.1
	여성	(739)	23.5	2.9	20.6	31.6	44.8	39.0	5.8
연령	15~19세	(104)	16.8	4.4	12.4	26.3	56.9	43.7	13.2
	20대	(256)	21.4	4.8	16.6	33.6	45.0	33.4	11.6
	30대	(267)	25.5	3.4	22.1	37.3	37.2	32.2	5.0
	40대	(316)	26.6	3.7	22.9	31.0	42.4	39.5	2.9
	50대	(327)	24.3	0.8	23.5	31.6	44.1	40.0	4.1
	60대	(230)	24.4	0.4	24.0	33.8	41.9	37.6	4.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19.1	6.0	13.1	24.4	56.5	44.7	11.8
	고등학교 졸업	(307)	22.3	2.5	19.8	40.0	37.9	32.0	5.9
	대학 재학/졸업	(986)	24.8	2.8	22.0	31.9	43.3	37.4	5.9
	대학원 재학 이상	(129)	24.9	1.2	23.7	27.6	47.5	44.4	3.1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23.0	2.9	20.1	29.1	47.9	40.8	7.1
	보통	(621)	24.2	1.9	22.3	36.6	39.2	34.4	4.8
	나쁘다	(178)	27.4	5.3	22.1	33.7	38.9	33.4	5.5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21.1	1.8	19.3	34.7	44.2	37.9	6.3
	1개	(219)	24.5	2.2	22.3	31.7	43.7	36.7	7.0
	2개	(162)	18.7	3.8	14.9	31.0	50.3	44.8	5.5
	3개	(134)	18.0	0.6	17.4	34.1	47.8	40.8	7.0
	4개	(113)	25.4	0.0	25.4	22.4	52.3	45.9	6.4
	5개 이상	(305)	33.9	6.2	27.7	34.2	32.0	27.8	4.2



## 응답자 특성

- ✓ 평소 정신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와 경험한 정신건강문제 수가 많을수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25]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64.5	12.0	52.5	25.5	10.1	8.7	1.4
성별	남성	(761)	60.2	10.0	50.2	27.7	12.1	10.3	1.8
	여성	(739)	68.9	14.0	54.9	23.2	7.9	6.9	1.0
연령	15~19세	(104)	53.1	7.4	45.7	28.5	18.4	14.9	3.5
	20대	(256)	53.7	12.3	41.4	32.2	14.2	9.9	4.3
	30대	(267)	70.1	13.7	56.4	24.8	5.1	5.1	0.0
	40대	(316)	64.3	12.6	51.7	27.8	7.9	7.6	0.3
	50대	(327)	71.8	12.6	59.2	18.9	9.4	8.5	0.9
	60대	(230)	64.9	9.9	55.0	23.4	11.7	10.4	1.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9.3	8.9	40.4	27.8	22.9	20.8	2.1
	고등학교 졸업	(307)	64.7	10.5	54.2	23.8	11.5	8.8	2.7
	대학 재학/졸업	(986)	65.9	12.4	53.5	26.1	8.0	7.1	0.9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2.3	14.1	48.2	23.1	14.7	12.5	2.2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64.4	11.3	53.1	24.2	11.5	9.6	1.9
	보통	(621)	61.6	11.2	50.4	28.3	10.1	8.8	1.3
	나쁘다	(178)	74.9	17.1	57.8	20.5	4.6	4.6	0.0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60.4	8.9	51.5	28.9	10.8	9.3	1.5
	1개	(219)	62.0	10.4	51.6	27.5	10.5	9.1	1.4
	2개	(162)	63.4	11.1	52.3	21.7	14.9	12.4	2.5
	3개	(134)	64.2	13.7	50.5	25.1	10.7	9.1	1.6
	4개	(113)	66.2	14.0	52.2	25.1	8.6	7.5	1.1
	5개 이상	(305)	73.9	17.8	56.1	19.9	6.2	5.4	0.8

## 응답자 특성

- ✓ 20대(46.1%)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6]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22.6	2.6	20.0	37.1	40.3	35.2	5.1
성별	남성	(761)	22.0	2.7	19.3	38.4	39.5	34.3	5.2
	여성	(739)	23.3	2.6	20.7	35.8	41.0	36.1	4.9
연령	15~19세	(104)	22.6	1.9	20.7	34.9	42.5	26.0	16.5
	20대	(256)	16.7	3.8	12.9	37.3	46.1	34.7	11.4
	30대	(267)	24.2	4.6	19.6	39.4	36.4	33.3	3.1
	40대	(316)	22.4	2.3	20.1	41.1	36.6	33.8	2.8
	50대	(327)	23.7	1.8	21.9	35.9	40.4	37.5	2.9
	60대	(230)	26.6	1.3	25.3	31.6	41.9	40.6	1.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24.2	6.4	17.8	33.9	42.0	28.5	13.5
	고등학교 졸업	(307)	23.2	1.4	21.8	39.3	37.5	33.9	3.6
	대학 재학/졸업	(986)	22.3	2.6	19.7	37.9	39.8	34.8	5.0
	대학원 재학 이상	(129)	22.6	3.2	19.4	28.1	49.2	45.1	4.1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22.2	3.0	19.2	36.5	41.3	35.9	5.4
	보통	(621)	22.7	1.9	20.8	40.2	37.2	32.8	4.4
	나쁘다	(178)	24.4	3.9	20.5	28.8	46.7	40.6	6.1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21.3	1.6	19.7	42.3	36.3	31.0	5.3
	1개	(219)	23.6	2.0	21.6	37.4	39.1	36.1	3.0
	2개	(162)	20.6	3.3	17.3	35.5	43.9	36.4	7.5
	3개	(134)	24.2	3.5	20.7	29.5	46.4	39.8	6.6
	4개	(113)	19.8	1.9	17.9	34.7	45.5	43.7	1.8
	5개 이상	(305)	26.0	4.6	21.4	32.3	41.7	36.4	5.3

## 응답자 특성

- ✓ 15~19세(59.4%)와 20대(57.1%)에서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27]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53.5	7.7	45.8	35.8	10.6	9.3	1.3
성별	남성	(761)	53.1	7.4	45.7	35.6	11.3	10.0	1.3
	여성	(739)	54.0	8.1	45.9	36.1	9.9	8.6	1.3
연령	15~19세	(104)	59.4	15.3	44.1	26.3	14.3	9.8	4.5
	20대	(256)	57.1	16.1	41.0	32.5	10.4	9.2	1.2
	30대	(267)	51.7	8.6	43.1	36.7	11.6	9.8	1.8
	40대	(316)	50.0	3.7	46.3	38.9	11.1	9.7	1.4
	50대	(327)	52.9	3.9	49.0	37.5	9.6	9.6	0.0
	60대	(230)	54.6	5.0	49.6	36.3	9.1	7.9	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57.1	18.1	39.0	31.8	11.1	6.1	5.0
	고등학교 졸업	(307)	47.8	6.0	41.8	40.3	11.9	9.4	2.5
	대학 재학/졸업	(986)	54.0	6.8	47.2	36.0	10.1	9.3	0.8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1.6	12.8	48.8	26.5	11.9	11.9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57.3	8.2	49.1	33.8	9.0	7.2	1.8
	보통	(621)	46.9	5.9	41.0	39.7	13.3	12.5	0.8
	나쁘다	(178)	61.4	12.2	49.2	30.4	8.3	7.1	1.2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53.0	6.8	46.2	39.1	7.9	6.9	1.0
	1개	(219)	54.1	4.6	49.5	34.4	11.5	9.8	1.7
	2개	(162)	48.7	7.4	41.3	34.6	16.7	13.7	3.0
	3개	(134)	52.5	9.7	42.8	37.9	9.5	8.9	0.6
	4개	(113)	53.0	8.4	44.6	33.9	13.1	11.9	1.2
	5개 이상	(305)	57.2	10.7	46.5	31.2	11.6	10.6	1.0

## 응답자 특성

- ✓ 2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8]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39.0	6.1	32.9	41.7	19.4	16.1	3.3
성별	남성	(761)	42.2	7.1	35.1	41.5	16.3	14.0	2.3
	여성	(739)	35.6	5.0	30.6	41.8	22.6	18.2	4.4
연령	15~19세	(104)	46.5	11.8	34.7	36.6	16.9	11.6	5.3
	20대	(256)	41.9	13.6	28.3	38.9	19.2	15.0	4.2
	30대	(267)	34.5	2.7	31.8	38.8	26.8	20.6	6.2
	40대	(316)	32.9	3.7	29.2	46.0	21.1	17.7	3.4
	50대	(327)	42.0	4.5	37.5	42.5	15.5	14.7	0.8
	60대	(230)	41.2	4.4	36.8	43.4	15.3	13.6	1.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9.1	13.4	35.7	34.5	16.4	9.7	6.7
	고등학교 졸업	(307)	36.4	5.3	31.1	41.2	22.4	18.8	3.6
	대학 재학/졸업	(986)	37.6	5.4	32.2	43.4	19.0	15.8	3.2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9.0	8.7	40.3	34.0	17.0	15.5	1.5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42.6	7.1	35.5	39.6	17.8	14.4	3.4
	보통	(621)	33.3	3.8	29.5	46.7	20.1	17.5	2.6
	나쁘다	(178)	44.4	10.1	34.3	32.5	23.0	17.6	5.4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40.6	5.4	35.2	41.3	18.1	16.0	2.1
	1개	(219)	36.4	5.4	31.0	44.8	18.8	15.5	3.3
	2개	(162)	31.8	5.1	26.7	40.6	27.7	22.7	5.0
	3개	(134)	39.1	3.8	35.3	43.3	17.7	15.2	2.5
	4개	(113)	34.3	1.9	32.4	49.6	16.1	11.2	4.9
	5개 이상	(305)	43.1	10.8	32.3	37.2	19.7	15.2	4.5

## 응답자 특성

- ✓ 20대 이하의 응답자에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9]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30.6	3.1	27.5	47.2	22.2	19.7	2.5
성별	남성	(761)	30.6	2.9	27.7	46.3	23.2	20.6	2.6
	여성	(739)	30.6	3.4	27.2	48.1	21.3	18.8	2.5
연령	15~19세	(104)	25.8	0.6	25.2	35.3	38.9	31.4	7.5
	20대	(256)	25.5	3.2	22.3	40.5	34.0	26.4	7.6
	30대	(267)	30.9	5.3	25.6	55.7	13.4	13.4	0.0
	40대	(316)	31.4	3.3	28.1	46.9	21.6	20.4	1.2
	50대	(327)	31.5	3.2	28.3	49.9	18.7	16.8	1.9
	60대	(230)	35.6	1.4	34.2	46.6	17.8	17.4	0.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28.6	0.8	27.8	31.6	39.7	34.0	5.7
	고등학교 졸업	(307)	29.5	3.0	26.5	51.3	19.3	16.9	2.4
	대학 재학/졸업	(986)	30.1	3.2	26.9	48.1	21.9	19.5	2.4
	대학원 재학 이상	(129)	38.7	4.8	33.9	40.1	21.2	19.0	2.2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30.3	3.3	27.0	45.5	24.2	21.6	2.6
	보통	(621)	28.9	2.8	26.1	51.2	20.0	18.0	2.0
	나쁘다	(178)	37.8	3.8	34.0	39.6	22.5	18.2	4.3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28.7	2.0	26.7	50.5	20.8	18.5	2.3
	1개	(219)	27.7	2.2	25.5	48.3	23.9	22.3	1.6
	2개	(162)	32.1	5.7	26.4	45.2	22.7	18.3	4.4
	3개	(134)	33.2	6.3	26.9	45.3	21.4	18.5	2.9
	4개	(113)	28.9	0.9	28.0	52.6	18.6	15.8	2.8
	5개 이상	(305)	34.9	4.1	30.8	40.0	25.2	22.7	2.5

## 응답자 특성

- ✓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20대 이하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30]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42.7	4.0	38.7	37.6	19.7	16.6	3.1
성별	남성	(761)	42.4	4.4	38.0	40.3	17.2	14.4	2.8
	여성	(739)	43.1	3.6	39.5	34.7	22.2	18.9	3.3
연령	15~19세	(104)	31.7	6.0	25.7	41.3	27.1	18.9	8.2
	20대	(256)	28.3	6.3	22.0	44.4	27.4	20.1	7.3
	30대	(267)	42.8	5.1	37.7	38.5	18.6	15.5	3.1
	40대	(316)	43.4	2.8	40.6	40.2	16.4	15.0	1.4
	50대	(327)	46.0	3.3	42.7	35.6	18.4	17.3	1.1
	60대	(230)	58.4	2.2	56.2	26.3	15.4	14.4	1.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39.6	7.8	31.8	32.6	27.8	20.9	6.9
	고등학교 졸업	(307)	48.2	3.9	44.3	35.1	16.7	13.9	2.8
	대학 재학/졸업	(986)	41.3	3.9	37.4	39.2	19.6	16.7	2.9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3.1	3.0	40.1	34.1	22.9	20.3	2.6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41.2	3.5	37.7	36.5	22.2	18.8	3.4
	보통	(621)	41.9	3.2	38.7	40.2	17.9	15.3	2.6
	나쁘다	(178)	51.3	8.7	42.6	32.4	16.2	13.0	3.2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37.9	1.8	36.1	42.6	19.5	17.0	2.5
	1개	(219)	44.2	3.4	40.8	35.9	20.0	17.1	2.9
	2개	(162)	37.3	5.8	31.5	38.0	24.7	20.4	4.3
	3개	(134)	46.1	3.8	42.3	35.1	18.9	16.6	2.3
	4개	(113)	42.8	4.7	38.1	34.9	22.3	17.8	4.5
	5개 이상	(305)	52.2	7.5	44.7	31.2	16.6	13.2	3.4

## 응답자 특성

- ✓ 연령이 높을수록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31] 정신건강(질환) 인식\_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39.1	4.7	34.4	40.4	20.4	17.8	2.6
성별	남성	(761)	36.8	3.7	33.1	43.8	19.4	16.7	2.7
	여성	(739)	41.6	5.8	35.8	36.8	21.6	19.0	2.6
연령	15~19세	(104)	28.3	7.3	21.0	42.7	28.9	21.1	7.8
	20대	(256)	33.3	5.6	27.7	36.3	30.4	24.0	6.4
	30대	(267)	39.9	5.9	34.0	43.8	16.3	14.9	1.4
	40대	(316)	37.8	4.2	33.6	41.8	20.6	19.4	1.2
	50대	(327)	42.1	4.0	38.1	41.9	16.1	14.9	1.2
	60대	(230)	47.6	3.1	44.5	35.9	16.5	15.0	1.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38.7	11.6	27.1	39.6	21.8	17.4	4.4
	고등학교 졸업	(307)	42.6	4.1	38.5	37.4	20.0	16.5	3.5
	대학 재학/졸업	(986)	37.9	4.7	33.2	41.0	21.1	18.7	2.4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1.4	2.5	38.9	43.1	15.5	14.3	1.2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36.7	3.4	33.3	39.8	23.5	20.4	3.1
	보통	(621)	39.5	4.2	35.3	43.2	17.2	15.0	2.2
	나쁘다	(178)	47.6	11.8	35.8	32.8	19.5	17.2	2.3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32.9	3.3	29.6	46.3	20.8	17.9	2.9
	1개	(219)	38.0	3.8	34.2	39.2	22.8	20.6	2.2
	2개	(162)	38.6	5.5	33.1	35.7	25.7	20.9	4.8
	3개	(134)	46.4	4.7	41.7	39.1	14.3	12.1	2.2
	4개	(113)	33.0	5.0	28.0	47.6	19.4	18.2	1.2
	5개 이상	(305)	51.0	7.6	43.4	30.7	18.2	16.3	1.9

## 응답자 특성

- ✓ 연령이 높을수록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32] 정신건강(질환) 인식\_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77.9	26.0	51.9	18.2	3.9	3.0	0.9
성별	남성	(761)	73.5	22.4	51.1	22.1	4.4	3.3	1.1
	여성	(739)	82.4	29.6	52.8	14.2	3.4	2.7	0.7
연령	15~19세	(104)	66.4	18.0	48.4	25.2	8.4	6.0	2.4
	20대	(256)	69.6	25.4	44.2	23.1	7.3	6.2	1.1
	30대	(267)	75.5	24.1	51.4	19.3	5.2	3.5	1.7
	40대	(316)	75.5	27.0	48.5	22.2	2.4	1.9	0.5
	50대	(327)	86.0	28.2	57.8	12.0	2.0	1.6	0.4
	60대	(230)	86.7	27.8	58.9	11.9	1.4	1.0	0.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71.4	19.7	51.7	20.6	8.0	6.1	1.9
	고등학교 졸업	(307)	78.9	25.8	53.1	17.0	4.2	2.7	1.5
	대학 재학/졸업	(986)	77.2	26.2	51.0	18.9	3.9	3.2	0.7
	대학원 재학 이상	(129)	84.4	28.3	56.1	14.8	0.8	0.0	0.8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3.5	30.9	52.6	13.4	3.1	2.3	0.8
	보통	(621)	72.8	21.1	51.7	23.3	3.9	2.8	1.1
	나쁘다	(178)	73.3	23.4	49.9	19.6	7.1	6.3	0.8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80.2	24.8	55.4	17.7	2.1	1.8	0.3
	1개	(219)	79.0	29.8	49.2	15.0	6.0	5.2	0.8
	2개	(162)	79.8	23.8	56.0	16.9	3.3	1.4	1.9
	3개	(134)	77.9	28.2	49.7	17.9	4.2	3.5	0.7
	4개	(113)	67.7	29.6	38.1	27.6	4.7	3.6	1.1
	5개 이상	(305)	75.3	24.1	51.2	19.1	5.5	3.9	1.6



## 응답자 특성

- ✓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 정신건강(질환) 인식\_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15.9	2.1	13.8	34.6	49.5	40.0	9.5
성별	남성	(761)	18.8	2.5	16.3	36.2	45.0	36.7	8.3
	여성	(739)	12.8	1.6	11.2	32.9	54.2	43.4	10.8
연령	15~19세	(104)	22.2	5.7	16.5	45.8	32.1	26.1	6.0
	20대	(256)	20.2	4.4	15.8	34.0	45.7	38.2	7.5
	30대	(267)	14.6	1.0	13.6	35.0	50.3	39.7	10.6
	40대	(316)	15.1	1.8	13.3	33.2	51.7	40.9	10.8
	50대	(327)	14.3	1.1	13.2	34.3	51.5	41.1	10.4
	60대	(230)	12.8	0.7	12.1	32.1	55.1	45.8	9.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20.7	7.1	13.6	48.2	31.1	28.2	2.9
	고등학교 졸업	(307)	17.6	3.3	14.3	36.2	46.2	37.4	8.8
	대학 재학/졸업	(986)	15.2	1.3	13.9	33.6	51.3	41.5	9.8
	대학원 재학 이상	(129)	14.1	1.9	12.2	30.4	55.5	42.2	13.3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17.1	2.3	14.8	32.9	49.9	39.2	10.7
	보통	(621)	14.1	1.8	12.3	39.1	46.8	40.0	6.8
	나쁘다	(178)	16.6	1.9	14.7	25.5	57.9	43.2	14.7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16.4	1.7	14.7	37.4	46.2	38.6	7.6
	1개	(219)	14.5	0.8	13.7	39.9	45.6	33.5	12.1
	2개	(162)	15.3	2.8	12.5	37.0	47.7	42.0	5.7
	3개	(134)	11.4	0.7	10.7	30.8	57.8	47.0	10.8
	4개	(113)	14.1	2.5	11.6	30.0	55.9	44.9	11.0
	5개 이상	(305)	18.8	3.8	15.0	27.7	53.5	41.3	12.2

## 응답자 특성

- ✓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4] 정신건강(질환) 인식\_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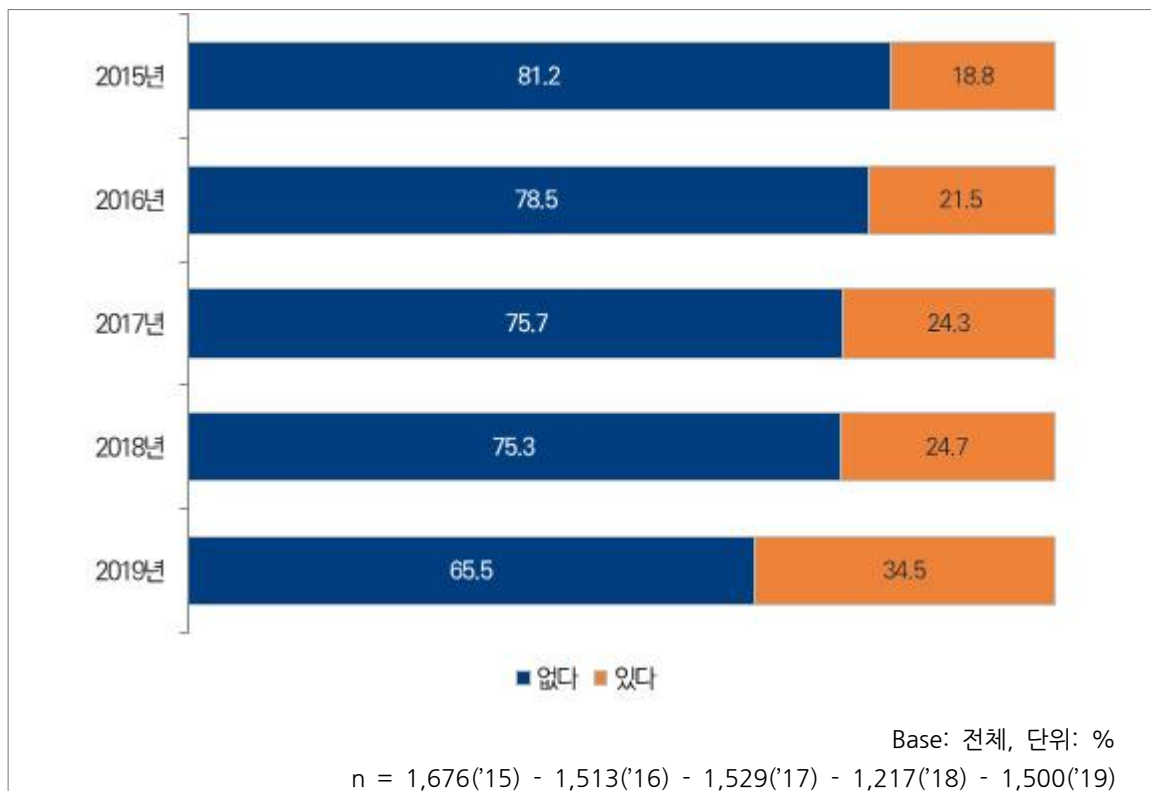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71.5	14.2	57.3	23.2	5.3	4.7	0.6
성별	남성	(761)	70.6	13.4	57.2	24.1	5.3	4.5	0.8
	여성	(739)	72.3	15.0	57.3	22.3	5.4	5.0	0.4
연령	15~19세	(104)	64.3	24.0	40.3	30.6	5.1	3.2	1.9
	20대	(256)	66.8	18.9	47.9	25.4	7.8	7.5	0.3
	30대	(267)	67.1	14.4	52.7	28.1	4.8	4.4	0.4
	40대	(316)	68.6	9.6	59.0	28.3	3.2	2.6	0.6
	50대	(327)	79.7	12.9	66.8	14.0	6.4	5.6	0.8
	60대	(230)	77.3	12.4	64.9	17.8	5.0	4.6	0.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9.9	22.6	47.3	22.2	7.9	6.6	1.3
	고등학교 졸업	(307)	72.3	14.1	58.2	23.0	4.7	3.5	1.2
	대학 재학/졸업	(986)	71.2	13.8	57.4	23.5	5.4	4.9	0.5
	대학원 재학 이상	(129)	72.7	12.2	60.5	22.0	5.3	5.3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0.0	17.5	62.5	15.2	4.8	4.3	0.5
	보통	(621)	64.1	10.9	53.2	30.5	5.3	5.0	0.3
	나쁘다	(178)	63.4	12.4	51.0	29.3	7.4	5.6	1.8
정신 건강 문제 경험 여부	없음	(567)	76.4	13.3	63.1	20.9	2.7	2.6	0.1
	1개	(219)	75.3	15.9	59.4	18.1	6.6	5.7	0.9
	2개	(162)	74.6	18.4	56.2	18.1	7.2	6.0	1.2
	3개	(134)	71.2	8.7	62.5	22.7	6.1	6.1	0.0
	4개	(113)	63.4	18.3	45.1	30.5	6.2	3.9	2.3
	5개 이상	(305)	60.9	13.1	47.8	31.4	7.7	7.1	0.6

## 나. 본인 또는 지인 중 정신건강질환 경험 여부

- 응답자의 34.5%가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 중에 정신건강 관련 질환(수면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5년 조사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7> 본인 또는 지인의 정신건강질환 경험 여부



## 응답자 특성

- ✓ 여성(38.6%), 20대(41.5%),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 중에 정신건강질환(수면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

[표 35] 본인 또는 지인의 정신건강질환 경험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없다	있다
전체		(1,500)	65.5	34.5
성별	남성	(761)	69.5	30.5
	여성	(739)	61.4	38.6
연령	15~19세	(104)	66.6	33.4
	20대	(256)	58.5	41.5
	30대	(267)	65.0	35.0
	40대	(316)	68.4	31.6
	50대	(327)	68.0	32.0
	60대	(230)	66.0	34.0
지역	서울	(289)	63.9	36.1
	인천/경기	(470)	63.9	36.1
	충청권	(160)	68.5	31.5
	경상권	(375)	66.2	33.8
	전라권	(145)	66.9	33.1
	강원/제주	(61)	70.4	29.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8.8	31.2
	고등학교 졸업	(307)	66.8	33.2
	대학 재학/졸업	(986)	65.3	34.7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2.3	37.7
소득	200만원 미만	(108)	63.2	36.8
	200~300만원	(148)	64.9	35.1
	300~400만원	(208)	65.9	34.1
	400~500만원	(171)	67.3	32.7
	500~600만원	(137)	67.2	32.8
	600만원 이상	(199)	62.9	37.1
	모름	(37)	71.2	28.8

## 다. 과도한 게임사용에 대한 인식

- 지난 5월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사용 장애’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82.0%가 ‘과도한 게임사용이 중독문제를 유발한다’(매우 그렇다 23.9%, 그렇다 58.1%)고 응답함.

<그림 18> 과도한 게임사용의 중독 유발에 대한 의견



## 응답자 특성

✓ 여성(88.4%), 연령이 높을수록 '과도한 게임사용이 중독문제를 유발한다'고 응답함.

[표 36] 과도한 게임사용의 중독 유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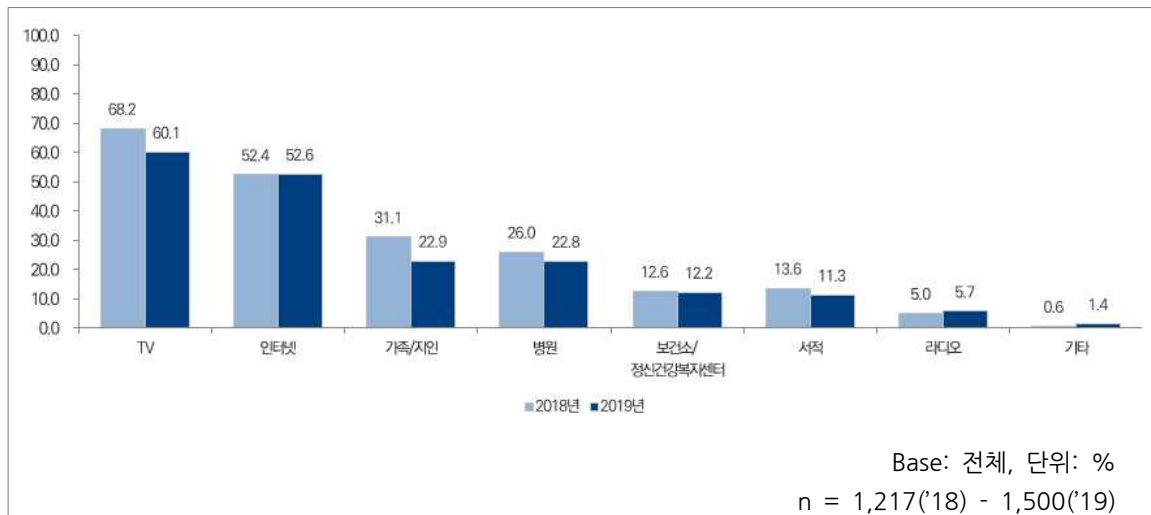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500)	82.0	23.9	58.1	18.0	11.6	6.4
성별	남성	(761)	75.7	19.1	56.6	24.3	14.6	9.7
	여성	(739)	88.4	28.9	59.5	11.6	8.5	3.1
연령	15~19세	(104)	64.6	20.8	43.8	35.4	16.7	18.7
	20대	(256)	67.4	18.9	48.5	32.7	18.0	14.7
	30대	(267)	82.4	23.7	58.7	17.7	12.6	5.1
	40대	(316)	84.9	28.0	56.9	15.2	10.6	4.6
	50대	(327)	91.5	26.6	64.9	8.5	6.3	2.2
	60대	(230)	88.2	21.8	66.4	11.8	9.9	1.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8.0	20.1	47.9	32.0	15.8	16.2
	고등학교 졸업	(307)	81.2	16.7	64.5	18.9	14.6	4.3
	대학 재학/졸업	(986)	82.7	26.1	56.6	17.3	10.7	6.6
	대학원 재학 이상	(129)	86.9	26.8	60.1	13.1	8.5	4.6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2.9	27.2	55.7	17.2	9.6	7.6
	보통	(621)	81.2	18.2	63.0	18.7	13.9	4.8
	나쁘다	(178)	81.0	30.9	50.1	19.0	11.2	7.8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84.1	20.5	63.6	15.9	9.9	6.0
	1개	(219)	79.4	27.2	52.2	20.6	14.3	6.3
	2개	(162)	77.3	24.8	52.5	22.6	12.9	9.7
	3개	(134)	85.1	23.6	61.5	14.9	13.9	1.0
	4개	(113)	77.6	29.7	47.9	22.4	15.7	6.7
	5개 이상	(305)	82.4	25.3	57.1	17.5	9.5	8.0

## 라. 정신건강(질환) 정보 습득 경로

-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TV'가 60.1%로 가장 높고, '인터넷'(52.6%), '가족 및 지인'(22.9%), '병원'(22.8%),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12.2%), '서적'(11.3%), '라디오'(5.7%), '기타'(1.4%) 순임.

<그림 19> 정신건강(질환)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

✓ 'TV'를 통한 정보 습득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았는데, 특히 3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7] 정신건강(질환)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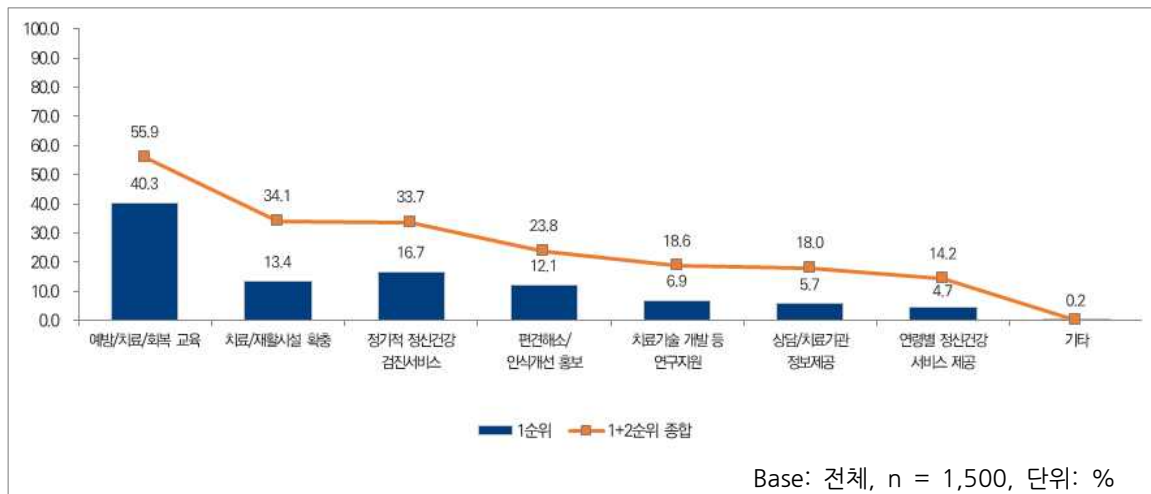
		사례수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	가족/ 지인	TV	서적	라디오	인터넷	기타
전체		(1,500)	22.8	12.2	22.9	60.1	11.3	5.7	52.6	1.4
성별	남성	(761)	23.7	13.4	22.3	57.3	8.5	5.7	54.2	1.4
	여성	(739)	21.9	10.9	23.6	63.0	14.2	5.6	50.9	1.4
연령	15~19세	(104)	21.3	9.0	25.5	53.1	7.5	3.7	44.2	2.7
	20대	(256)	27.0	15.8	20.7	49.8	11.8	3.8	48.5	2.5
	30대	(267)	28.2	14.0	23.2	61.0	9.8	7.4	49.4	1.0
	40대	(316)	21.7	11.2	20.7	62.3	12.0	4.7	54.8	0.8
	50대	(327)	18.3	10.6	22.0	65.9	12.5	6.8	58.3	0.8
	60대	(230)	20.2	11.1	28.3	62.7	11.6	6.2	53.6	1.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14.9	5.6	21.6	53.0	7.5	4.9	42.2	3.3
	고등학교 졸업	(307)	23.2	14.1	23.1	63.0	7.0	7.0	50.2	2.4
	대학 재학/졸업	(986)	23.0	12.5	23.1	59.3	12.7	5.2	54.4	0.9
	대학원 재학 이상	(129)	25.0	9.3	21.8	63.8	13.2	6.6	50.8	1.3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23.3	12.6	23.7	63.5	12.2	6.0	53.4	1.0
	보통	(621)	21.5	12.3	21.9	60.1	10.5	6.5	52.1	1.6
	나쁘다	(178)	25.4	10.3	23.3	46.9	10.8	1.3	51.4	2.3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22.3	13.1	19.1	64.8	9.7	5.4	52.5	1.7
	1개	(219)	20.8	11.0	23.6	63.0	14.1	7.5	50.3	1.7
	2개	(162)	19.9	13.1	26.0	58.9	11.6	5.6	51.8	0.3
	3개	(134)	17.8	7.8	24.7	58.5	5.9	5.7	54.6	0.0
	4개	(113)	22.1	9.9	21.8	54.6	14.9	3.9	51.7	1.2
	5개 이상	(305)	28.9	13.6	27.6	52.8	13.2	5.4	54.2	1.8



## 마.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

-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예방, 치료, 회복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으며,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34.1%),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서비스’(33.7%),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23.8%),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18.6%), ‘상담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18.0%), ‘연령별 정신건강서비스(프로그램) 제공’(14.2%) 순임.

<그림 20>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순위문항)



## 응답자 특성

- ✓ 모든 집단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의 1순위로 '예방, 치료, 회복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꼽음.

[표 38]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예방/치료/회복에 대한 교육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	치료 및 재활시설 확충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체		(1,500)	40.3	6.9	13.4	12.1
성별	남성	(761)	41.9	8.9	14.8	10.5
	여성	(739)	38.5	4.9	12.0	13.7
연령	15~19세	(104)	37.2	9.3	9.4	17.8
	20대	(256)	40.2	8.3	10.3	19.7
	30대	(267)	39.9	4.8	11.0	14.6
	40대	(316)	39.1	6.9	13.5	10.9
	50대	(327)	47.2	4.8	14.4	6.7
	60대	(230)	34.1	9.7	19.9	7.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37.5	7.2	15.7	13.7
	고등학교 졸업	(307)	45.2	7.5	13.3	11.2
	대학 재학/졸업	(986)	39.0	6.5	13.4	12.4
	대학원 재학 이상	(129)	39.8	8.4	11.9	10.8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43.1	8.2	13.5	10.5
	보통	(621)	38.3	6.0	13.3	12.4
	나쁘다	(178)	35.9	5.0	13.4	17.4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44.5	6.9	14.3	7.9
	1개	(219)	40.5	5.4	13.1	15.1
	2개	(162)	45.4	7.4	11.1	9.4
	3개	(134)	41.9	5.6	13.0	13.2
	4개	(113)	32.8	9.3	12.8	12.7
	5개 이상	(305)	31.6	7.4	13.5	18.4

[이어짐]

[표 39]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순위, 계속)

(단위: 명, %)

		사례수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연령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상담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전체		(1,500)	16.7	4.7	5.7	0.2
성별	남성	(761)	15.0	4.1	4.3	0.5
	여성	(739)	18.4	5.3	7.1	0.0
연령	15~19세	(104)	11.3	8.1	6.0	1.0
	20대	(256)	13.2	3.5	4.6	0.2
	30대	(267)	20.9	1.5	6.5	0.8
	40대	(316)	20.3	7.3	2.1	0.0
	50대	(327)	13.6	3.6	9.8	0.0
	60대	(230)	17.7	6.2	5.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14.4	5.2	5.4	1.0
	고등학교 졸업	(307)	12.6	5.7	4.1	0.3
	대학 재학/졸업	(986)	17.8	4.3	6.4	0.2
	대학원 재학 이상	(129)	19.7	5.2	4.2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15.1	3.5	5.8	0.3
	보통	(621)	18.1	6.3	5.5	0.2
	나쁘다	(178)	18.1	4.1	6.1	0.0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16.6	3.4	5.8	0.6
	1개	(219)	16.5	4.2	5.0	0.3
	2개	(162)	14.7	3.4	8.6	0.0
	3개	(134)	13.6	5.7	7.0	0.0
	4개	(113)	20.3	7.0	5.1	0.0
	5개 이상	(305)	18.0	6.9	4.1	0.0

## 응답자 특성

- ✓ 30~40대에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서비스'를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0]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2순위 종합)

(단위: 명, %)

		사례수	예방/치료/회복에 대한 교육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	치료 및 재활시설 확충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체		(1,500)	55.9	18.6	34.1	23.8
성별	남성	(761)	55.9	23.2	38.4	22.2
	여성	(739)	55.9	13.9	29.7	25.4
연령	15~19세	(104)	52.8	22.3	32.6	29.7
	20대	(256)	52.7	21.9	25.8	35.9
	30대	(267)	55.9	18.8	27.6	25.1
	40대	(316)	56.3	15.6	33.5	21.9
	50대	(327)	61.8	16.5	40.0	17.5
	60대	(230)	52.2	20.1	44.2	17.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8.8	22.4	36.1	24.4
	고등학교 졸업	(307)	60.7	18.5	35.5	24.2
	대학 재학/졸업	(986)	55.5	18.1	32.9	24.6
	대학원 재학 이상	(129)	52.4	20.4	38.9	16.3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60.8	18.7	35.3	22.2
	보통	(621)	52.5	18.9	34.1	24.4
	나쁘다	(178)	48.6	17.2	29.6	27.9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59.8	19.9	36.2	22.1
	1개	(219)	57.4	12.7	37.5	24.7
	2개	(162)	61.4	17.8	32.7	16.1
	3개	(134)	60.8	20.1	31.4	22.9
	4개	(113)	52.7	16.1	30.4	27.0
	5개 이상	(305)	43.7	21.1	31.1	29.5

[이어짐]

[표 4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선 지원사항(1+2순위 종합,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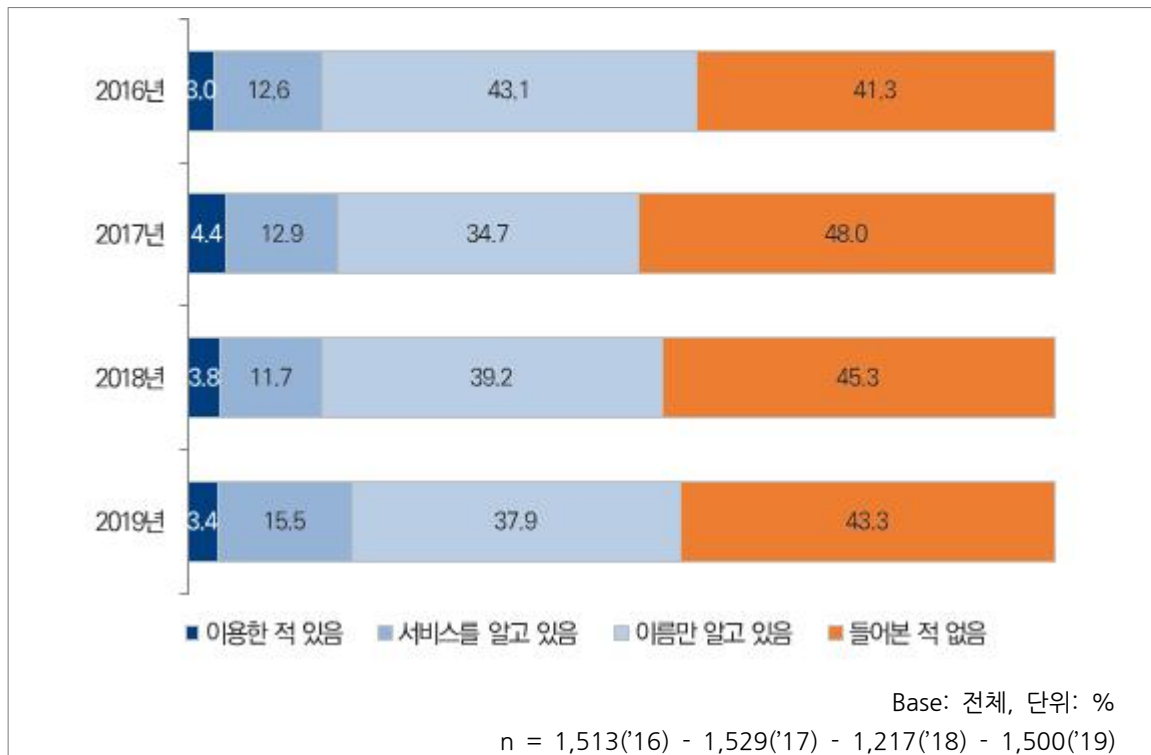
		사례수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연령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상담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전체		(1,500)	33.7	14.2	18.0	0.2
성별	남성	(761)	30.4	13.2	14.6	0.5
	여성	(739)	37.2	15.3	21.5	0.0
연령	15~19세	(104)	25.2	15.5	20.0	1.0
	20대	(256)	29.0	11.7	21.3	0.2
	30대	(267)	39.2	11.3	20.0	0.8
	40대	(316)	38.7	18.0	14.0	0.0
	50대	(327)	29.5	13.8	19.4	0.0
	60대	(230)	35.8	15.6	14.6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29.5	14.0	21.1	1.0
	고등학교 졸업	(307)	31.2	12.5	15.3	0.3
	대학 재학/졸업	(986)	34.4	14.6	18.7	0.2
	대학원 재학 이상	(129)	37.4	15.6	17.5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31.1	13.2	17.5	0.3
	보통	(621)	35.6	15.9	16.6	0.2
	나쁘다	(178)	37.8	12.7	25.0	0.0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32.4	10.7	17.3	0.6
	1개	(219)	36.7	14.5	14.9	0.3
	2개	(162)	33.6	15.8	19.7	0.0
	3개	(134)	28.6	17.6	17.9	0.0
	4개	(113)	39.7	17.2	16.9	0.0
	5개 이상	(305)	34.2	17.2	21.0	0.0

##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도는 56.8%(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다 3.4% +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15.5% + 기관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37.9%)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함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4%로 전년 조사 대비 0.4%p 감소함

<그림 2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응답자 특성

✓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표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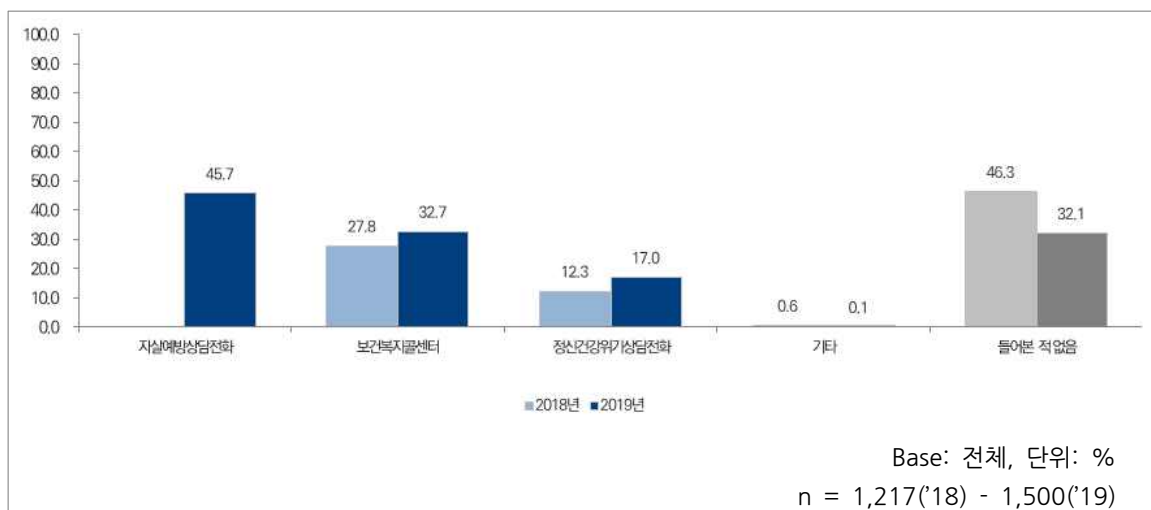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①+②+③ 알고 있음	이름만 알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했다	④ 모름
전체		(1,500)	56.8	37.9	15.5	3.4	43.3
성별	남성	(761)	56.4	37.4	15.3	3.7	43.6
	여성	(739)	57.1	38.4	15.7	3.0	42.9
연령	15~19세	(104)	45.9	31.6	13.3	1.0	54.1
	20대	(256)	53.7	32.2	17.5	4.0	46.3
	30대	(267)	51.8	34.4	13.0	4.4	48.1
	40대	(316)	55.8	36.1	16.4	3.3	44.3
	50대	(327)	61.9	44.5	14.1	3.3	38.1
	60대	(230)	64.7	44.1	17.8	2.8	35.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5.2	28.8	15.1	1.3	54.8
	고등학교 졸업	(307)	57.9	42.6	13.7	1.6	42.1
	대학 재학/졸업	(986)	57.2	36.6	16.0	4.6	42.9
	대학원 재학 이상	(129)	57.7	41.7	16.0	0.0	42.2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57.3	39.1	15.2	3.0	42.6
	보통	(621)	56.7	36.9	16.3	3.5	43.2
	나쁘다	(178)	53.8	36.1	13.5	4.2	46.2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57.9	41.3	14.5	2.1	42.2
	1개	(219)	55.1	37.5	13.2	4.4	44.8
	2개	(162)	55.9	33.1	21.6	1.2	44.0
	3개	(134)	57.5	37.6	16.3	3.6	42.5
	4개	(113)	45.3	33.0	9.3	3.0	54.6
	5개 이상	(305)	59.9	36.2	17.5	6.2	40.0

## 나.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2)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6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별 인지도는 ‘자살예방상담전화’가 45.7%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콜센터’(32.7%),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7.0%) 순이며, 전년 대비 서비스별 인지도가 상승함.

<그림 22>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복수응답)



2) 2019년 조사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 보기를 추가함.



## 응답자 특성

✓ 대체로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3]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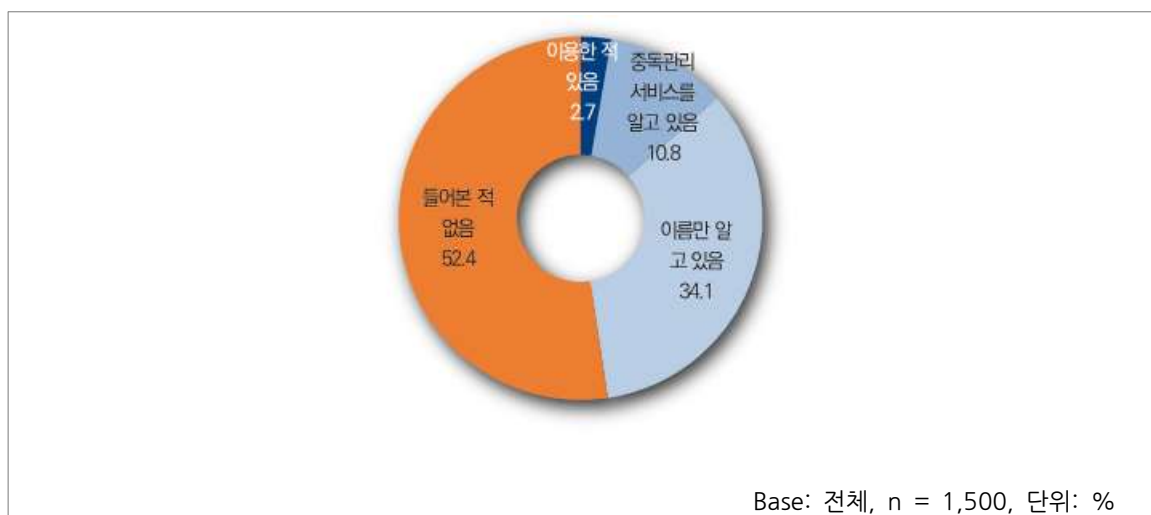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들어본 적 있음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기타	들어본적 없음
전체		(1,500)	67.9	17.0	32.7	45.7	0.1	32.1
성별	남성	(761)	64.4	17.1	32.1	39.7	0.1	35.6
	여성	(739)	71.5	16.8	33.2	51.9	0.1	28.5
연령	15~19세	(104)	70.3	18.6	23.1	51.4	0.0	29.7
	20대	(256)	68.1	21.1	30.6	47.2	0.0	31.9
	30대	(267)	67.2	17.6	33.0	44.5	0.0	32.8
	40대	(316)	68.4	15.9	33.7	44.6	0.2	31.6
	50대	(327)	68.6	16.6	32.4	46.9	0.2	31.4
	60대	(230)	65.5	12.8	37.6	42.7	0.0	34.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4.5	16.9	25.0	42.7	0.0	35.5
	고등학교 졸업	(307)	68.8	15.7	36.5	42.0	0.0	31.2
	대학 재학/졸업	(986)	68.8	17.0	33.2	47.5	0.1	31.2
	대학원 재학 이상	(129)	61.0	19.8	24.1	42.9	0.5	39.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70.1	18.2	36.0	47.1	0.1	29.9
	보통	(621)	65.6	16.0	31.3	43.0	0.0	34.4
	나쁘다	(178)	67.5	15.4	24.2	49.6	0.4	32.5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66.0	16.5	34.7	41.0	0.1	34.0
	1개	(219)	67.3	19.8	27.9	44.9	0.0	32.7
	2개	(162)	69.0	12.6	37.8	49.7	0.0	31.0
	3개	(134)	62.4	15.1	27.1	44.6	0.0	37.6
	4개	(113)	65.8	15.7	24.9	52.4	0.0	34.2
	5개 이상	(305)	74.4	19.4	34.9	51.0	0.2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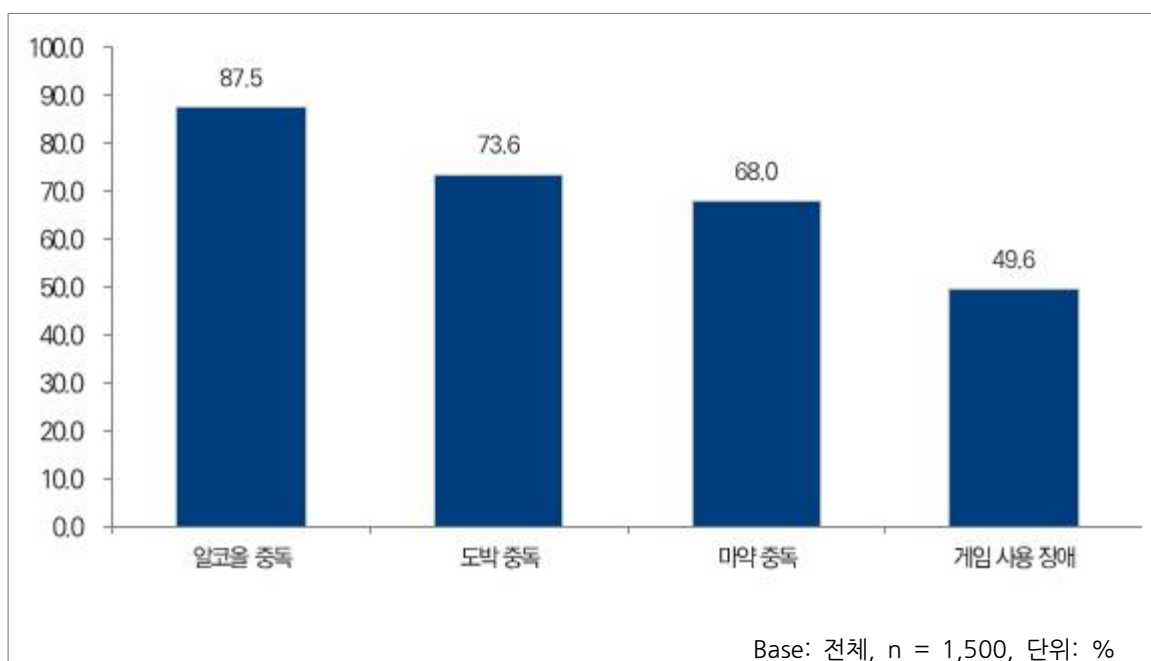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 응답자의 47.6%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1%, '중독관리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8%이며, '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상담 유형에 대해 '알코올 중독'(87.5%)상담이 가장 높았고, '도박 중독'(73.6%), '마약 중독'(68.0%), '게임 사용 장애'(49.6%) 순임.

<그림 2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그림 2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지도



## 응답자 특성

✓ 20대(50.3%)와 60대(54.6%)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

[표 4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단위: 명, %)

		사례수	①+②+③ 알고 있음	이름만 알고 있다	중독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중독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④ 모름
전체		(1,500)	47.6	34.1	10.8	2.7	52.4
성별	남성	(761)	48.6	33.7	12.0	2.9	51.3
	여성	(739)	46.5	34.5	9.5	2.5	53.6
연령	15~19세	(104)	38.8	32.0	5.6	1.2	61.2
	20대	(256)	50.3	34.6	12.1	3.6	49.7
	30대	(267)	45.3	33.0	7.7	4.6	54.6
	40대	(316)	45.5	30.5	13.1	1.9	54.4
	50대	(327)	46.9	33.9	10.9	2.1	53.1
	60대	(230)	54.6	40.8	11.9	1.9	45.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45.4	34.2	8.1	3.1	54.6
	고등학교 졸업	(307)	45.5	33.7	7.1	4.7	54.4
	대학 재학/졸업	(986)	48.6	34.1	12.4	2.1	51.4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5.6	34.7	9.3	1.6	54.4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48.8	34.3	12.3	2.2	51.3
	보통	(621)	48.1	34.3	10.6	3.2	51.8
	나쁘다	(178)	40.8	32.3	5.6	2.9	59.2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45.3	32.3	11.0	2.0	54.7
	1개	(219)	44.9	27.8	15.7	1.4	55.2
	2개	(162)	51.2	43.1	6.1	2.0	48.8
	3개	(134)	48.9	31.7	13.4	3.8	51.0
	4개	(113)	47.5	35.0	8.4	4.1	52.5
	5개 이상	(305)	51.1	37.7	9.2	4.2	48.9

## 응답자 특성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상담유형에 대해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게임사용 장애'는 15~19세 (62.7%)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4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지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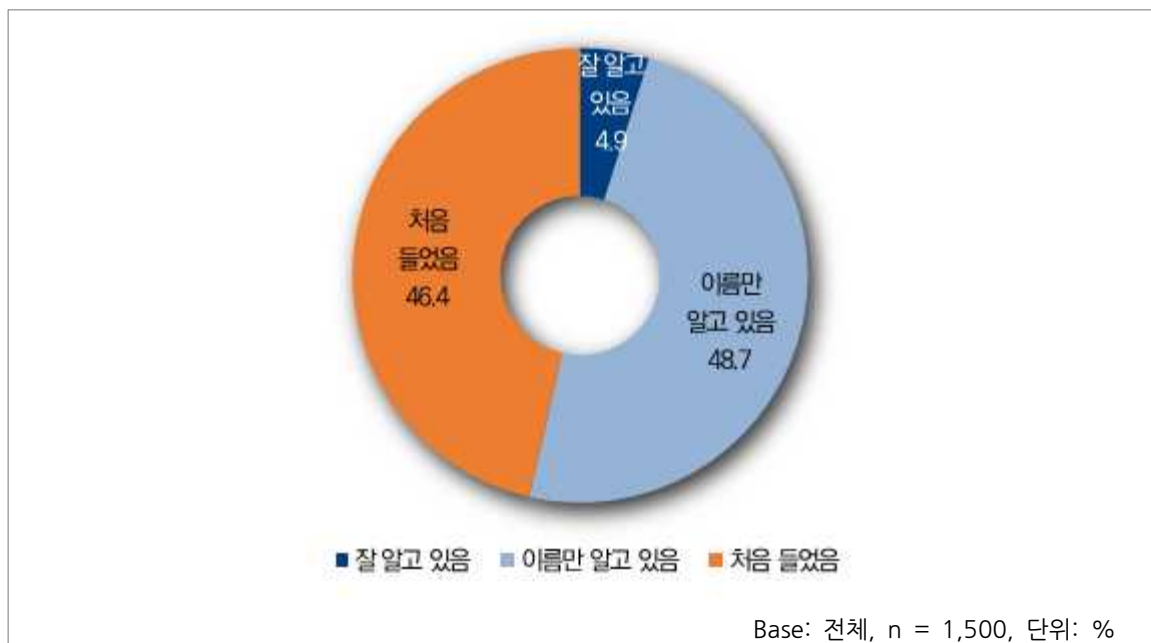
		사례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사용 장애
전체		(1,500)	87.5	73.6	68.0	49.6
성별	남성	(761)	84.8	72.9	65.6	46.4
	여성	(739)	90.2	74.4	70.5	52.9
연령	15~19세	(104)	78.3	72.6	63.2	63.7
	20대	(256)	84.6	74.3	69.1	53.0
	30대	(267)	86.2	74.2	67.9	44.2
	40대	(316)	89.6	72.3	66.2	47.9
	50대	(327)	88.8	73.9	68.3	50.4
	60대	(230)	91.3	74.1	70.9	47.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77.9	70.2	58.5	63.5
	고등학교 졸업	(307)	83.5	68.4	66.9	47.0
	대학 재학/졸업	(986)	89.2	73.9	67.6	49.1
	대학원 재학 이상	(129)	89.5	85.8	79.5	51.8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8.9	74.6	70.1	49.1
	보통	(621)	86.4	73.0	66.0	49.4
	나쁘다	(178)	85.7	71.8	66.4	52.6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88.9	74.0	69.1	50.9
	1개	(219)	83.5	70.2	68.8	48.4
	2개	(162)	89.1	80.4	69.8	51.2
	3개	(134)	89.4	75.9	67.4	47.0
	4개	(113)	87.4	77.3	68.2	49.1
	5개 이상	(305)	85.9	69.5	64.6	48.5

## 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1)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도는 53.6%(잘 알고 있다 4.9% + 이름만 알고 있다 48.7%)임.

<그림 25>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 응답자 특성

✓ 연령이 높을수록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도가 높음.

[표 46]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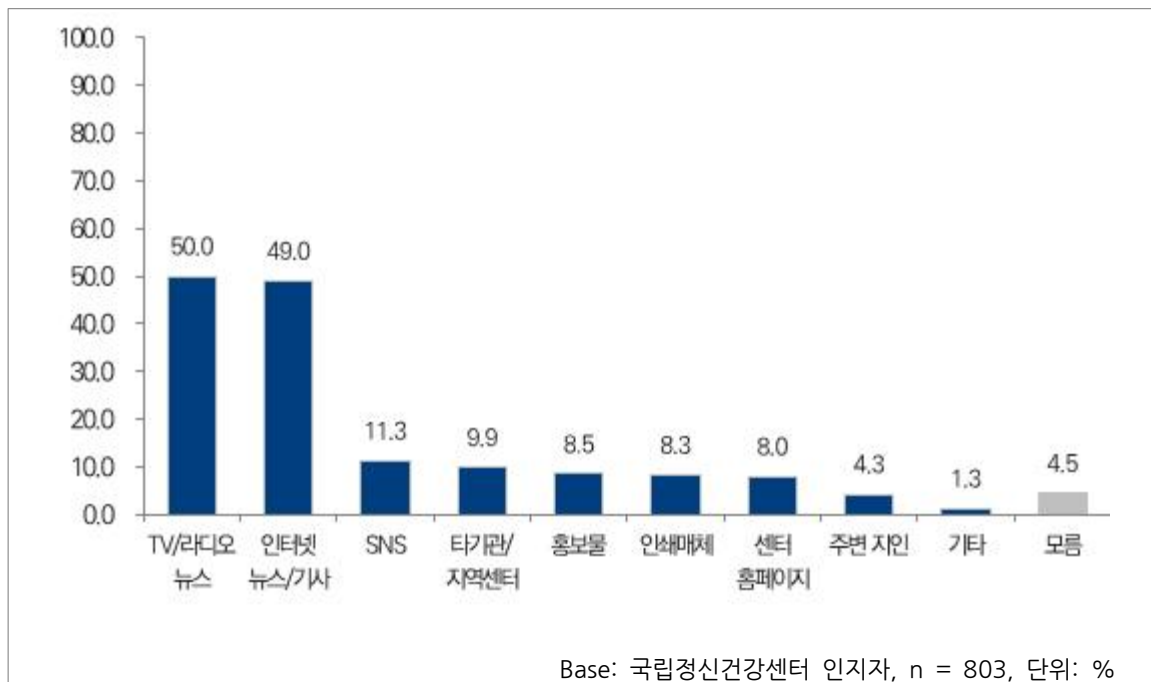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① 처음 들었다	②+③ 알고 있음	이름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1,500)	46.4	53.6	48.7	4.9
성별	남성	(761)	46.8	53.2	49.1	4.1
	여성	(739)	46.1	54.0	48.3	5.7
연령	15~19세	(104)	61.7	38.3	32.6	5.7
	20대	(256)	55.3	44.7	38.9	5.8
	30대	(267)	54.3	45.7	42.4	3.3
	40대	(316)	44.1	55.9	52.8	3.1
	50대	(327)	37.8	62.2	56.8	5.4
	60대	(230)	36.0	64.0	56.8	7.2
지역	서울	(289)	47.9	52.1	48.1	4.0
	인천/경기	(470)	46.7	53.3	48.1	5.1
	충청권	(160)	46.0	54.0	50.6	3.4
	경상권	(375)	45.1	54.9	49.7	5.2
	전라권	(145)	44.3	55.7	49.4	6.3
	강원/제주	(61)	52.1	47.9	42.5	5.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65.8	34.2	27.1	7.1
	고등학교 졸업	(307)	45.3	54.7	49.7	5.0
	대학 재학/졸업	(986)	45.3	54.7	50.0	4.7
	대학원 재학 이상	(129)	46.2	53.8	49.1	4.7

## 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자 중 절반 정도가 ‘TV·라디오 뉴스 관련 프로그램’(50.0%) 또는 ‘인터넷 뉴스나 기사’(49.0%)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SNS’(11.3%), ‘타의료기관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9.9%),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의 오프라인 홍보물’(8.5%), ‘종이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8.3%),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8.0%), ‘주변 지인’(4.3%) 순임.

<그림 26>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

- ✓ 20~40대는 '인터넷 뉴스나 기사'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고, 15~19세와 50대 이상은 'TV·라디오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음.

[표 47]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TV/라디오 뉴스	인터넷 뉴스/기사	SNS	국립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인쇄매체 (신문/잡지)
전체		(803)	50.0	49.0	11.3	8.0	8.3
성별	남성	(405)	47.3	49.0	11.9	9.1	8.1
	여성	(399)	52.7	49.0	10.5	7.0	8.5
연령	15~19세	(40)	30.4	27.5	17.3	10.6	0.0
	20대	(114)	29.0	38.0	24.3	8.9	7.5
	30대	(122)	43.1	52.5	16.1	6.0	5.7
	40대	(177)	51.4	60.1	5.5	10.6	8.7
	50대	(203)	59.7	49.6	8.2	6.6	9.1
	60대	(147)	62.4	46.3	6.6	7.2	11.5
지역	서울	(151)	44.1	50.9	16.0	8.3	11.1
	인천/경기	(250)	45.3	48.8	10.8	9.1	7.9
	충청권	(86)	52.8	51.9	7.7	9.0	1.9
	경상권	(206)	55.9	41.6	9.3	7.4	10.3
	전라권	(81)	56.0	59.2	12.9	4.7	7.5
	강원/제주	(29)	54.2	56.1	10.7	7.2	3.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43.1	24.9	11.5	4.7	7.5
	고등학교 졸업	(168)	56.2	45.1	9.3	5.0	7.8
	대학 재학/졸업	(539)	47.8	50.0	12.4	8.8	8.2
	대학원 재학 이상	(69)	54.7	59.5	6.7	10.7	10.6



[표 48]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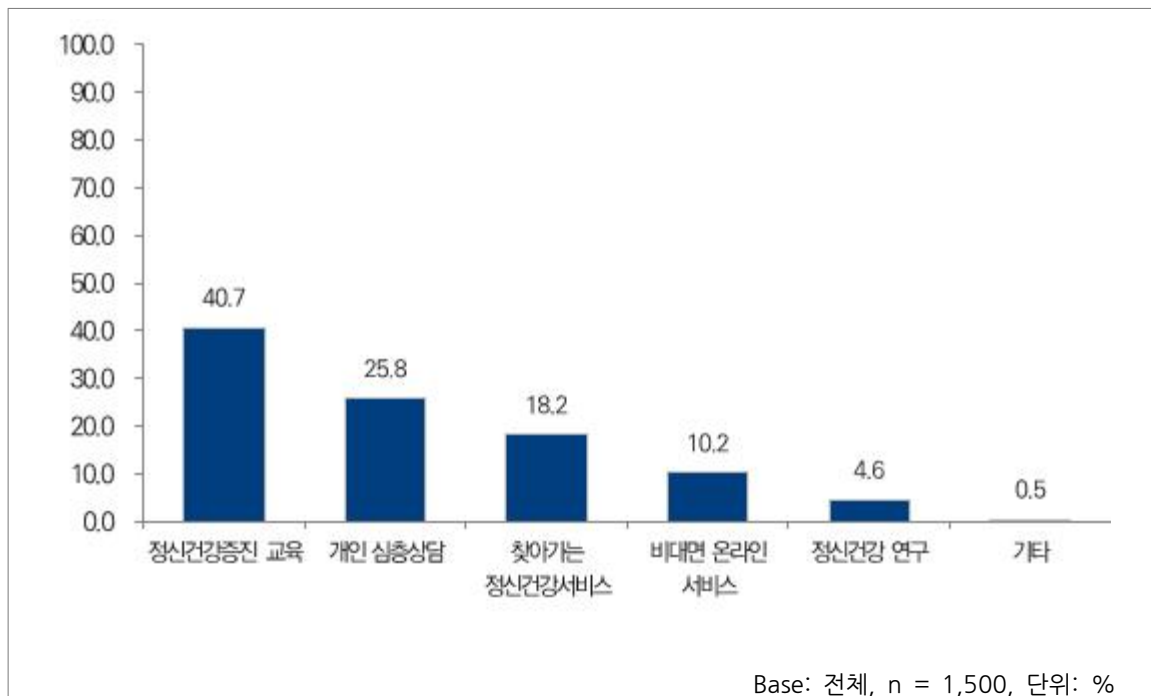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오프라인 홍보물	타의료기관/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주변 지인	기타	모름
전체		(803)	8.5	9.9	4.3	1.3	4.5
성별	남성	(405)	8.6	9.8	4.4	0.8	4.7
	여성	(399)	8.4	10.1	4.1	1.9	4.3
연령	15~19세	(40)	18.6	15.2	6.2	0.0	20.6
	20대	(114)	13.2	6.9	5.6	5.5	8
	30대	(122)	12.2	8.9	3.4	1.3	5.5
	40대	(177)	7.9	6.7	3.2	0.0	2
	50대	(203)	3.8	12.9	3.2	0.9	2.8
	60대	(147)	6.5	11.6	6.3	0.6	1.8
지역	서울	(151)	9.4	8.5	5.9	0.0	4.3
	인천/경기	(250)	13.5	6.0	2.6	2.2	5.5
	충청권	(86)	5.9	13.0	4.0	0.0	6.1
	경상권	(206)	5.4	14.8	3.3	0.9	4.1
	전라권	(81)	4.8	8.5	8.6	3.9	1.9
	강원/제주	(29)	1.7	11.8	6.0	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5.8	25.5	6.7	3.0	5
	고등학교 졸업	(168)	7.4	9.9	5.5	1.1	4
	대학 재학/졸업	(539)	8.8	9.6	3.9	1.3	5
	대학원 재학 이상	(69)	2.6	6.7	2.9	1.4	1.4

### 3)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40.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과 전문의 개인 심층상담’(25.8%),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18.2%), ‘앱, 홈페이지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10.2%), ‘정신건강 연구’(4.6%) 순임.

<그림 27>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 응답자 특성

- ✓ 평소 정신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개인 심층상담'을 가장 많이 꼽음.

[표 49]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단위: 명, %)

		사례수	정신과 전문 개인 심층상담	정신건강 증진 교육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정신건강 연구	기타
전체		(1,500)	25.8	40.7	18.2	10.2	4.6	0.5
성별	남성	(761)	23.4	39.4	19.5	11.2	5.9	0.6
	여성	(739)	28.2	42.1	16.9	9.2	3.2	0.4
연령	15~19세	(104)	32.5	20.5	16.6	18.8	8.7	2.9
	20대	(256)	34.7	29.2	16.6	11.2	7.5	0.8
	30대	(267)	25.7	38.4	17.8	13.4	4.4	0.3
	40대	(316)	25.7	40.7	21.8	7.9	3.9	0.0
	50대	(327)	19.5	52.4	15.9	8.4	3.4	0.3
	60대	(230)	21.9	48.8	19.7	7.2	2.4	0.0
지역	서울	(289)	29.4	37.9	17.6	10.6	4.4	0.0
	인천/경기	(470)	24.7	41.0	19.6	10.4	3.9	0.4
	충청권	(160)	28.9	40.1	17.3	8.1	4.5	1.0
	경상권	(375)	23.2	42.1	17.6	10.2	6.3	0.7
	전라권	(145)	22.6	45.7	15.7	12.8	2.8	0.6
	강원/제주	(61)	32.2	33.9	22.7	6.4	4.8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31.2	20.9	16.7	20.6	9.6	1.0
	고등학교 졸업	(307)	24.2	47.1	18.0	6.9	2.5	1.3
	대학 재학/졸업	(986)	25.6	41.4	17.9	10.4	4.5	0.2
	대학원 재학 이상	(129)	27.2	32.7	22.4	10.2	7.5	0.0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24.9	41.6	19.0	10.2	3.8	0.5
	보통	(621)	24.0	42.0	17.8	10.4	5.6	0.3
	나쁘다	(178)	35.5	32.9	16.7	9.7	4.3	0.9
정신 건강 문제 수	없음	(567)	23.7	46.2	17.6	9.0	2.9	0.5
	1개	(219)	24.5	41.5	17.6	9.1	6.6	0.7
	2개	(162)	25.5	39.0	20.8	7.7	7.0	0.0
	3개	(134)	28.9	33.8	16.1	14.6	6.7	0.0
	4개	(113)	27.1	36.5	21.3	11.4	3.7	0.0

#### 4)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광역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 인지도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87.3%(거의 모르는 편이다 45.5% + 전혀 모른다 41.8%)고 응답함.

<그림 28>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 인지도



## 응답자 특성

✓ 대부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표 50]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차이 인지도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모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르는 편이다	③+④ 알고 있음	약간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전체		(1,500)	87.3	41.8	45.5	12.8	11.3	1.5
성별	남성	(761)	86.2	41.4	44.8	13.7	11.6	2.1
	여성	(739)	88.3	42.2	46.1	11.7	10.9	0.8
연령	15~19세	(104)	86.6	51.8	34.8	13.4	11.7	1.7
	20대	(256)	87.0	46.7	40.3	13.0	12.0	1.0
	30대	(267)	88.9	48.6	40.3	11.2	8.9	2.3
	40대	(316)	87.2	44.2	43.0	12.8	11.2	1.6
	50대	(327)	88.2	34.4	53.8	11.8	10.8	1.0
	60대	(230)	84.9	31.4	53.5	15.2	13.9	1.3
지역	서울	(289)	89.4	41.8	47.6	10.6	9.3	1.3
	인천/경기	(470)	85.3	42.5	42.8	14.7	12.7	2.1
	충청권	(160)	87.9	42.3	45.7	12.1	10.9	1.1
	경상권	(375)	86.4	41.3	45.1	13.6	12.7	0.8
	전라권	(145)	88.8	38.2	50.5	11.2	10.1	1.1
	강원/제주	(61)	92.2	46.8	45.3	7.8	4.6	3.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9)	85.4	49.4	36.0	14.6	12.0	2.6
	고등학교 졸업	(307)	87.2	39.4	47.8	12.7	11.2	1.5
	대학 재학/졸업	(986)	87.5	42.0	45.5	12.5	11.4	1.1
	대학원 재학 이상	(129)	87.0	41.7	45.3	13.0	9.6	3.4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좋다	(701)	85.1	37.3	47.8	14.9	13.1	1.8
	보통	(621)	88.8	43.3	45.5	11.2	10.1	1.1
	나쁘다	(178)	90.4	54.4	36.0	9.6	8.0	1.6
정신 건강 문제 수	0개	(567)	85.1	38.4	50.3	14.9	13.1	1.8
	1개	(219)	88.8	43.6	41.2	11.2	10.1	1.1
	2개	(162)	90.4	37.0	50.9	9.6	8.0	1.6
	3개	(134)	88.8	47.5	43.2	11.2	9.9	1.3
	4개	(113)	84.8	52.4	37.4	15.2	14.0	1.2
	5개 이상	(305)	88.0	42.9	40.5	12.0	9.8	2.2



## [부록] 설문지







##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설문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행기관]



현대리서치컨설팅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수행기관: 현대리서치컨설팅

연락처:

FAX:

실사담당

연락처: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성별 (※면접원 기재)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① 만 15세~19세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SQ3.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                      ) 시/도 (                      ) 시/군/구 (                      ) 동/읍/면						

응답자 성명		연락처1	(                      ) - (                      ) - (                      )
--------	--	------	--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검증원		감독원	

# I. 정신건강 상태

문1. 귀하의 평소 정신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문2.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노력을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 문2-1로 이동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문3으로 이동

문2-1. 응답 대상      문2의 ①, ②번 응답자만 해당

문2-1.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 ① 운동 및 취미활동      ② 규칙적인 생활  
 ③ 상담 및 대화      ④ 명상 및 휴식  
 ⑤ 봉사활동      ⑥ 종교생활  
 ⑦ 기타 ( )

문3. 다음은 지난 1년 간 귀하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을 지난 1년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경험 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없다	있다	응답란
1)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①	②	
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①	②	
3)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폭력행위 등)	①	②	
4)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	①	②	
5)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	①	②	
6) 심각한 스트레스	①	②	
7) 자살생각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함.)	①	②	
8)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①	②	
9)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①	②	
10) 알코올 문제	①	②	
11) 약물중독 문제	①	②	
12) 도박 중독문제 (온라인 도박 포함 등)	①	②	
13) 기타 중독문제 (게임 중독 등)	①	②	

안내      문3의 1)~13) 중 모두 “①번 (없다)”으로 응답하신 분은 I-2 파트의 ‘문6’으로 이동

## I-1. 정신건강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대상 설문

### 파트 I-1. 응답 대상

문4, 문5, 문5-1은 문3의 1)~13) 중 하나라도 “②번 (있다)”로 응답하신 분에 해당함

문4. 귀하께서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 분	큰 지장이 있음	상당한 지장이 있음	경미한 지장이 있음	별 영향 없음	응답란
1) 일상생활 및 가정 생활	①	②	③	④	
2)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3) 업무 및 학업	①	②	③	④	

문5. 귀하는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누군가와 상의(상담)를 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5-1로

② 없다 → 문7로

#### 안내

문5의 ①번을 응답하신 분은 ‘문5-1’로 이동  
문5의 ②번을 응답하신 분은 ‘문7’로 이동

### 문5-1. 응답 대상 문5의 ①번 응답자에 해당

문5-1. 귀하께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당시, 이에 대해 누구와 병원치료 혹은 상담(상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대상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 및 친지                | <input type="checkbox"/> ② 친구 또는 이웃                   |
| <input type="checkbox"/> ③ 사회복지사                  | <input type="checkbox"/> ④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                |
| <input type="checkbox"/> ⑤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 → 문5-2로 | <input type="checkbox"/> ⑥ 정신과 이외의 의사(또는 간호사) → 문5-2로 |
| <input type="checkbox"/> ⑦ 종교인                    | <input type="checkbox"/> ⑧ 무속인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   |

#### 안내

문5-1의 ①, ②, ③, ④, ⑦, ⑧, ⑨번을 응답하신 분은 ‘문7’로 이동  
문5-1의 ⑤, ⑥번을 응답하신 분은 ‘문5-2’로 이동

### 문5-2. 응답 대상 문5-1의 ⑤, ⑥번 응답자만 해당

문5-2. 귀하는 처음으로 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알게 된 후, 치료(약물 포함)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                  |                   |
|------------------|-------------------|
| ① 3개월 이하         | ②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 ③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④ 1년 초과 ~ 3년 이하   |
| ⑤ 3년 초과          |                   |

### 1-2. 정신건강문제가 [없다]는 응답자 대상 설문

**문6. 응답 대상** 문3의 1)~13) 중 모두 “①번 (없다)”에 응답하신 분에 해당함

문6. 귀하께서는 **문3**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주변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상담)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주변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상담) 할 의향이 없다 → **문7로**  
 ② 주변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상담) 할 의향이 있다 → **문6-1로**

**문6-1. 응답 대상**    문6의 ②번 응답자만 해당

문6-1. 만약 상의(상담)를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가족 및 친지                      ② 친구 또는 이웃
- ③ 사회복지사                        ④ 심리 또는 상담전문가
- ⑤ 정신과 의사(또는 간호사)      ⑥ 정신과 이외의 의사(또는 간호사)
- ⑦ 종교인                              ⑧ 무속인
- ⑨ 기타 ( )

안내 문6-1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7. 응답 대상      문5의 ②번, 문6의 ①번 응답자만 해당

문7. 다른 사람에게 상의(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으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치료가 필요하나,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 ② 정신질환은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것이라서  
③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④ 적당한 치료기관을 알지 못해서  
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⑥ 기타( )

안내 문7 응답 후, 문8로 이동

## II.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문8. 귀하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정신질환이란?

정서나 사고 등 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본인 또는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등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9. 본인 혹은 가까운 사람 중에 정신건강 관련 질환(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문10. 귀하께서는 평소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십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선택해주시오.)

☐ ① 병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②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③ 가족 및 지인

☐ ④ TV

☐ ⑤ 서적

☐ ⑥ 라디오

☐ ⑦ 인터넷

☐ ⑧ 기타 ( )

문11.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예방, 치료, 회복에 대한 교육    | ②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지원       |
| ③ 치료 및 재활시설 확충         | ④ 편견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 ⑤ 정기적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 ⑥ 연령별 정신건강서비스(프로그램) 제공 |
| ⑦ 상담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 ⑧ 기타 ( )               |

문1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내 보건소 혹은 구청 등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증진도모,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 ① 기관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 ②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다.
- ④ 들어본 적 없다

문13.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전화번호들 중 귀하께서 **들어본 적이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정신건강 상담 전화서비스란?**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정신건강 상담과 지지, 정신건강 정보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 ①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국번없이 1577-0199)
- ☐ ②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 ③ 자살예방상담전화(국번없이 1393)
- ☐ ④ 기타 전화 (기관명 : , 전화번호 : )
- ☐ ⑤ 들어본 적 없다

문14. 귀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관리 체계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① 기관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 ②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 관련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다.
- ④ 들어본 적 없다



## 응답자 배경 문항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2. 귀 닥의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⑨ 잘 모름

DQ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⑦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직업군인)                      ⑪ 학생/재수생                      ⑫ 주부  
⑬ 무직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

---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발 행 일 | 2019. 11.  
조 사 기 관 | (주)현대리서치컨설팅